

**예비 고1(중3) 대상**



**EBS가 답이다!**

**EBS 입시자료집**

**- 2025학년도 입시정보 수록 -**

# 예비 고1

## EBS 입시자료집

\* 이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최신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입시 요강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EBSi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최신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차례

---

<b>I .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b>	<b>5</b>
1.1. 주요 발표 내용	6
1.2. 변화 내용에 따른 대비 방안	7
<b>II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b>	<b>19</b>
2.1. 2015 개정교육과정 이해	20
2.2.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중요성	26
<b>III . 고등학교 학교생활 안내</b>	<b>27</b>
3.1. 고등학교 생활 안내	28
3.2. 학생부는 무엇인가?	31
3.3. 학생부 어떻게 완성하나?	32
<b>IV . 과목별 학습 방법</b>	<b>37</b>
4.1. 국어	38
4.2. 수학	45
4.3. 영어	51
4.4. 한국사	57
4.5. 통합사회	59
4.6. 통합과학	62

<b>V. EBS 콘텐츠 활용 안내</b>	<b>65</b>
5.1. EBSi 소개	66
5.2. 예비 고1 대상 추천 강좌	67
5.3. EBSi 편리한 서비스	70
5.4. 입시정보 서비스	71



I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 I.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 1.1. 주요 발표 내용

2025학년도 대입전형은 2024학년도 대입전형과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이다.

### 가. 2024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권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
-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결정
  - 국어·수학·직업탐구 공통 + 선택형 구조
  - 사회/과학탐구 자유롭게 2과목 선택 가능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실시
- 수능 EBS 연계율 50%, 간접연계
-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R&E)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방과후학교활동 미기재
  - 영재 발명교육 대입 미반영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 자율활동(500자), 동아리활동(500자), 진로활동(700자)
-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폐지 - 교사추천서 폐지
- 면접·구술고사 개선
  - 학생부 기반 맞춤형 확인 면접 지향 - 블라인드 면접 도입
-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 나. 고교교육 혁신방향

### ■ 고교학점제 도입

- 1단계: 2018~2021년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2015 개정교육과정 현장 안착)  
‘진로선택과목’ 성취도(2019년 고1 대상) 대입전형자료(2022학년도) 제공
- 2단계: 2022~2024년 학점제 부분 도입(2015 개정교육과정 일부 개정)
- 3단계: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차기 교육과정 적용)

### ■ 고교체제 개편

- 1단계: 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자사고, 외고, 국제고 선발시기 후기로 변경)
- 2단계: 2018~2020년 성과평가를 통한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유도
- 3단계: 2020년 이후 고교체제 개편

# 1.2. 변화 내용에 따른 대비 방안

## 가. 2024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 1)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확대

#### ◆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권고

-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 의견을 고려하여 제외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여 재정지원과 연계
  -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대학에 사업 참여 자격조건 부여
  - 단,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대학은 자율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전형유형(교과, 종합, 수능)별 모집인원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생부				수능		전체정원
	교과		종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14,695	16.3	28,549	31.7	32,540	36.1	90,046
수도권	27,690	21.0	38,906	29.5	43,225	32.8	131,782
지방	127,026	58.4	42,797	19.7	26,686	12.3	217,342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대학을 살펴보면 정시의 비율이 35% 이상이고 실제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정시전형은 40% 이상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대비 2.3% 감소한 22.0%이고, 학생부교과전형은 1.3% 증가한 44.2%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0.4% 늘어난 23.3%를 선발한다. 대입 공정성 강화 대상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은 정시가 더욱 확대된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은 수시모집 인원이 10,064명 증가하고 정시모집 인원은 7,493명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시전형이 13.9%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수시 교과전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아 정시 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대학들의 경우 점차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총원율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을 수시에 선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수도권대학의 경우 정시 모집인원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수시모집은 수도권 대학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주요 대학은 정시 비율이 41.0%로 2022년도에 비해 1.9% 늘어났고, 학생부교과전형은 11.4%로 변화가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은 33.7%로 2022학년도보다 1.7% 줄어들었다.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늘어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수시모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능위주전형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주요 대학의 정시전형 비율을 상승시켜서 수능시험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 학생들은 수시의 학생부전형과 정시의 수능전형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고민하되 두 전형 모두 고입 초기부터 꾸준히 함께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2023-2022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증감현황(C) (C)=(A)-(B)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54,464	44.2	148,506	42.9	5,958
	학생부위주(종합)	81,390	23.3	79,503	22.9	1,887
	논술위주	11,016	0.3	11,069	3.2	-53
	실기/실적위주	21,014	6.0	18,817	5.4	2,197
	기타	4,558	1.3	4,483	1.3	75
소계		<b>272,442</b>	<b>78.0</b>	<b>262,378</b>	<b>75.7</b>	10,064
정시	수능위주	69,911	20.0	75,978	21.9	-6,067
	실기/실적위주	6,150	1.8	7,470	2.2	-1,320
	학생부위주(교과)	252	0.1	201	0.1	51
	학생부위주(종합)	313	0.1	347	0.1	-34
	기타	56	0.0	179	0.1	-123
소계		<b>76,682</b>	<b>22.0</b>	<b>84,175</b>	<b>24.3</b>	<b>-7,493</b>
합계		<b>349,124</b>	<b>100</b>	<b>346,553</b>	<b>100</b>	<b>2,571</b>

\* 전형유형별 선발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2)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 ◆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김
- 단, 선발 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함

기존의 대입제도는 수시전형은 학생부중심, 정시전형은 수능중심으로 구분하여 수시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지 않도록 권장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권장하던 것을 자율에 맡기면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채택하는 대학이 늘어났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한 대학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였다. 정시전형 모집인원 증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학이 증가하면서 수능시험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 3)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 ◆ 국어 : 공통과목(독서, 문학) +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 ◆ 수학 : 공통과목(수학, 수학II) +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 영어, 한국사 : 절대평가 유지
- ◆ 탐구(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구분없이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택2
- ◆ 탐구(직업계) :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 5개 계열 중 택1
-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절대평가 전환)

영역	출제범위(선택과목)
국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공통 : 수학, 수학II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 영어II
한국사	한국사
탐구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 과학II) 직업계 : 전문공통(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 직업 : 6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 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2021학년도 수능은 수학을 (가) 또는 (나)형으로 선택하게 되어있어서 각 계열별 탐구과목 선택에 의한 변수만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을 계열에 따라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이 수월한 편이었다. 반면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 수학 과목이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면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여 보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이다.

〈공통과목 점수 활용 선택과목 점수 조정〉

$\text{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 \frac{\text{[선택과목] 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frac{\text{[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text{표준편차}} + \frac{\text{[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text{평균}}$	
$\text{공통과목 원점수 표준화} = \frac{\text{[공통과목] 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ext{선택과목 조정점수 표준화} = \frac{\text{[선택과목] 조정점수} - \text{조정점수 평균}}{\text{조정점수 표준편차}}$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는 내가 선택한 선택과목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 표준편차로 나누고,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표준점수를 곱하고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을 더하는 방식이다. 그런 다음에 공통과목 원점수를 표준화하여 74%,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표준화하여 26%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수학과목의 경우 공통과목이 74%인데, 아무래도 이과 성향 학생들의 점수가 높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상위 등급을 따기에 어려운 구조다. 이과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금까지는 많은 대학에서 탐구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필수로 응시해야 할 과목이었다. 그러나 2022학년도부터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지만,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바뀌어 서로 대체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수험생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응시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학년도 자연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현황〉

영역	선택과목 지정 여부	
	지정 과목	해당 대학
국어	지정X	모든 대학
수학	기하 또는 미적분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홍익대

영역	선택과목 지정 여부	
	지정 과목	해당 대학
	확률과 통계	대구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탐구	과탐 2과목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아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강원),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림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홍익대
	사탐 2과목	대구한의대, 인제대

자연계의 경우 수학 선택과목과 탐구 선택과목을 특정 대학에서 필수 응시과목으로 지정하였다. 2023 시행계획에 따르면 자연계 수학의 경우 기하 또는 미적분을 필수로 선택하는 대학은 58개교이고, 탐구영역에서 과탐 2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는 대학은 62개교이다.

과목별 선택의 경향성은 기존의 탐구영역에서 특정 과목에 학생들의 쏠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더욱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상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고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할 전형에 따라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한다면 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4) 수능 EBS 연계율

◆ EBS 연계율은 50%로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  
(간접연계)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하는 것으로, 영어 지문 단순 암기 등 직접연계로 인한 문제점 해소

EBS 연계율이 50%인 만큼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 도표나 자료, 지문의 단순 암기는 지양하고, 기본이 되는 교과서와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학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인적·학적사항	- 인적·학적사항 통합
출결상황	- '미인정'은 불성실함의 근거
수상경력	- 교내상만 입력 -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진로 희망사항	- 진로희망은 창체진로활동 영역에 기재 -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자율동아리	-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소논문 활동	- 소논문(R&E)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미기재																						
자격증 및 인종취득 상황	- 재학중에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만 입력 - 대입 활용자료 미제공																						
청소년단체 활동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정규교육과정 내 클럽: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 -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기재																						
봉사활동 실적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방과후학교 활동	- 학생부에 미기재																						
기재 분량 감축	- 각 항목별 특기사항 입력 글자 수 축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목</th> <th colspan="5">현행</th> </tr> <tr> <th>자율</th> <th>동아리</th> <th>봉사</th> <th>진로</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창체 특기사항</td> <td>500</td> <td>500</td> <td>미기재</td> <td>700</td> <td rowspan="2">2,200</td> </tr> <tr> <td>행특 종합의견</td> <td colspan="4">500</td> </tr> </tbody> </table>	항목	현행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창체 특기사항	500	500	미기재	700	2,200	행특 종합의견	500			
	항목		현행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창체 특기사항	500	500	미기재	700	2,200																		
행특 종합의견	500																						
학생부관련 연수 강화	-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일반 교원, 강사 요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제공																						
기재 도움 자료 확대 보급	- 학교급별 맞춤 기재요령, 기재 우수 사례, 기재 지원프로그램 보급																						
기재 책무성 강화	- 단위학교/교육청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허위사실 및 기재 금지사항 기재 시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엄정 조치																						
평가 신뢰도 제고	-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 ‘평가 관리 강화방안’ 마련·시행 평가관리 일원화, 출제 중 보안대책 수립,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한 CCTV 설치 등 추진																						

- 수상경력 : 그동안 수상은 어떤 대회라도 상을 많이 받는 것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고 수상의 등위보다도 일단 수상 자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제 수상경력이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내 대회를 대폭 축소하였다. 수상경력이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만큼 교과세특과 창체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자율동아리 : 자율동아리는 학생의 관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여겨져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던 항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되면서 평가 자료로서의 중요성은 없어졌다. 다만, 학생 스스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깊이 있게 한다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는 있다.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활동은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소논문(R&E) 모든 항목 미기재 : 그동안 소논문을 고등학생 수준으로 써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과도한 연구 내용을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많은 대학들은 이미 평가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학생부 기록을 위해 소논문은 학생부 어딘가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왔다. 소논문 금지는 ‘용어사용 금지’에 그칠 것이고, ‘탐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될 것이다. 사실상 지적호기심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학생이 탐구한 보고서는 ‘소논문’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논문’이라는 용어는 사라져도 ‘(심화)탐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의 탐구는 계속 기록될 것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다.
- 방과후학교 활동 :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는 학교의 프로그램이다. 사실상 사교육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풀이 형식의 수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와 일반 수업에서 제공할 수 없는 발표, 토론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후자와 같은 학교들의 경우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한 양질의 학생부 기록이 어려워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존에 많이 담당하던 수능 준비 기능으로 국한되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학생부 기록이 불가능해진 만큼 방과후학교 활동 자체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점형·연합형 학교의 심화 수업이나 온라인강좌 등의 공급과 수요가 새롭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은 자기 학교의 방과후학교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지역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더 필요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검색하고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록항목이다. 특히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경우 여기저기 다 적지 못한 다양한 활동을 기록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어왔는데, 기재분량의 축소는 전체 학생들의 활동 기록 분량 측면에서 변별력을 줄어든게 할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의 활동을 늘려 학생부의 분량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즉, 줄어든 글자 수 안에 기록한 활동의 내용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활동의 양보다는 질이 좋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무 활동이나 많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보다 관심있는 분야의 활동을 깊이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가지도 깊이 있는 활동과 경험을 한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나 관심 영역이 뚜렷한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6)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 자기소개서 폐지
- ◆ 교사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사교육의 영향도 있어서 폐지했다.

교사추천서의 경우 기존에도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핵심적인 서류는 아니었다지만 교사와 학생이 갖던 부담을 덜어주고자 폐지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 7) 면접·구술고사 개선

- ◆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재정지원과 연계,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 최소화 유도
  -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모집정지 등 엄중 제재
- ◆ 대입 블라인드 면접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 미제공

각 대학마다 면접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시문 기반 면접과 학생부 확인면접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도 면접 방식은 학생부 기반의 확인면접을 권장해왔으며 대부분의 대학들도 이미 학생부 확인면접을 많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제시문 기반의 구술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 현재와 같이 면접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다.

블라인드 면접은 현재 2019학년도 대입부터 다수의 대학들이 이미 도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만 학생부를 보면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단순히 성명과 수험번호, 출신고교만을 가린다고 해서 학생의 정보를 완전히 제거한 면접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는 있으나, 공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8) 지필고사 개선방안

- ◆ 수시 적성고사 폐지
  - 수능과 유사하고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는 수시 적성고사 폐지
  - 사교육 유발 우려되는 논술전형은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와 논술전형은 학교의 내신성적을 대학별고사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형으로 내신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전형이다. 논술의 경우 학생의 사고력을 깊이 있게 측정하는 문항 등을 내세워 수능과는 차별화된 전형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적성고사는 수능과 같은 선다형 문항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의 수능중심전형과 차별성이 없어서 대입간소화 정책에서 가장 먼저 폐지되었다.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학들은 전형을 폐지하면서 모집인원을 다른 전형으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 등은 적성전형을 폐지하면서 논술전형을 신설하였다.

논술의 경우 이미 계속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매년 사교육 영향이 높다고 나타나는 논술전형은 계속해서 폐지를 유도해 나가겠지만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완전 폐지보다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제도 개편안〉

구분	'24학년도 이후
수능 전형 비율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선발방법 취지 고려)
수능 출제 범위	국어(공통) : 독서, 문학/국어(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공통) : 수학I, 수학II/수학(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 영어, 영어II 한국사 : 한국사 탐구(일반) : 계열 구분 없이 택2 (사회 : 9과목/과학 : 8과목/탐구(직업) : 성공적인 직업생활 + 5과목 중 택1) 제2외/한문 : 9과목 중 택1
수능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수능 EBS 연계율	50% (간접연계 확대)
학생부 기재 개선	2022학년도 부터 대입 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평가과정 투명화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평가 기준 공개 확대 유도 부정·비리 제재 근거법 규정 신설
선발결과 공시	대학별 대입전형별 고교 유형·지역별 합격자 수 공시
면접·구술고사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	폐지

〈학교생활기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구분	現 고2~고3 (22~23학년도 대입)	現 고1 (24학년도 대입)	
①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목당 500자</li> <li>방과후학교활동(수강) 내용 미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목당 500자</li> <li>방과후학교활동(수강) 내용 미기재</li> <li>영재·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li> </ul>	
②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500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500자</li> </ul>	
③ 비교과 영역	자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500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500자</li> </ul>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500자</li> <li>자율 동아리 연간 1개(30자)만 기재</li> <li>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li> <li>소논문 기재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500자</li> <li>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li> <li>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li> <li>소논문 기재 금지</li> </ul>





구분		現 고2~고3 (22~23학년도 대입)	現 고1 (24학년도 대입)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기사항 미기재</li> <li>■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기사항 미기재</li> <li>■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li> </ul>	
진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700자</li> <li>■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700자</li> <li>■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li> </ul>	
수상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 미반영</li> </ul>	
독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명과 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 미반영</li> </ul>	

## 나. 고교교육 혁신 방향

### 1) 고교학점제 도입

<p>◆ 고교학점제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li> </ul>
<p>◆ 고교학점제의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선택권 보장</li> <li>- 다양한 과목 개설</li> <li>- 진로교육</li> <li>- 학생 참여형 수업</li> <li>-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li> <li>-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li> </ul>
<p>◆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 이수단위를 학점으로 하여 학력(자격) 취득을 위한 총 이수학점, 필수·선택 이수학점 제시</li> <li>- 평가제도 :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수업 중 이루어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중심 평가 실시·평가 후 성취 수준 미달 시 학업보충기회 제공</li> <li>- 졸업제도 :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학년 단위 진급이나 졸업이 아닌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졸업 요건 설정</li> </ul>

2021년 기준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마련하는 교육부 로드맵 1단계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된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을 편성·운영하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 이미 고교학점제 및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미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지만 대입 전형 개편안이 1년 유예되면서 실질적인 적용은 2019년 고1 학생들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교학점제 역시 전면 도입이 아닌 단계별 적용 로드맵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2019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하여 내신 성취평가의 성적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전면 도입이 아닌 진로선택과목에 한정된 점진적인 변화를 제시했지만 이 결정은 2022 대입개편안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22 대입개편안의 내용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을 따지는 것에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은 부분이었다. 반면 고교 내신에서 기존의 상대평가가 아닌 성취도 평가 성적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일부 과목이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이어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능에서 기하나 과Ⅱ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내신을 결정하는 교과선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시행 로드맵 및 이에 따른 예상 변화 내용〉

학점제 정부 로드맵	적용 교육과정	해당 학년	대입 학년도	확정 또는 예상되는 변화 내용
1단계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장 안착 ('18~'21년)	고3	2019 2022	2022 대입개편 내용 모두 기본 적용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고2	2020 2023	
		고1	2021 2024	
2단계 학점제 부분도입	2015 개정교육과정 일부 개정 ('22~'24년)	중3	2022 2025	2022 대입개편 내용 모두 기본 적용 * 2015개정교육과정 일부개정 과정 (‘18)정책연구→(‘20)일부개정고시→(‘22)고1 적용 → 교육과정 일부 개정 내용 적용(학점기준 설정) → 이에 따른 대입제도 일부 수정개편 가능성 있음 → 학점제 확대 따른 성취평가제 확대 가능성 있음
		중2	2023 2026	
		중1	2024 2027	
3단계 학점제 본격 시행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25년)	초6	2025 2028	* 차기 교육과정 개정(학점제 전면 실시 교육과정) (‘20)개발→(‘22.상)개정고시→(‘25)고1적용 → 2022개정 교육과정: 학점제 전면 실시 → 전면개방형 선택형 교육과정 가능성 높음 →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 실시 가능성 높음 → 수능 절대평가 실시 가능성 높음 → 종합변형 비율 증가 가능성 높음

2022 대입제도개편에서 함께 제시된 고교학점제 및 교육과정 그리고 내신 성취평가제 등의 내용변화는 2021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2025년에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고교교육 혁신 방향이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 또한 앞으로의 중등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단계 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과도기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따라 대입제도나 내신 성취평가제 등은 과도기 성격에 맞게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국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2025년까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과도기 단계에서의 변화의 폭은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다.



고교교육 혁신방향으로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는 3단계의 내용을 보면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교육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속도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마치 개화기에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문물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교육도 사회변화의 방향을 거스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학을 잘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이 제도개편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임을 이해하고 학생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대입뿐만 아니라 학생을 미래인재로 길러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내신 성취평가제 내용〉

◆ 진로선택과목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22학년도)로 제공

※ 진로선택과목 :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 대입정보 제공 안 : 석차 등급 및 표준편차 미제공(원점수,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제공)

[진로 선택과목 성취도 표기]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수준 학생 비율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 (‘25년~) 모든 과목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로 제공

~(선택) 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전면 개정(‘25, 고1 대상)

2022학년도 대입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가 대입에 반영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상대평가 교과 성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도평가 몇 과목의 성적은 평가 반영의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전공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 진로선택과목이 성취평가 성적이라 하여 완전히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일반선택 교과와 달리 경쟁 없이 성취도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진로선택과목은 자사고나 특목고 등 기존에 내신이 불리했던 학교들에서 내신 경쟁을 완화시켜줄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존에 단순히 이수 여부만을 표시하는 성적인 ‘P’가 아닌 성취도 성적이 A~C까지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성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선택과목의 개수는 역시 제한적일 것이고 여전히 내신성적은 경쟁으로 구분하는 상대평가 과목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인 학점제 로드맵 1단계~2단계에서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성취도 평가의 혜택을 크게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Ⅱ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II.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 2.1. 2015 개정교육과정 이해

### 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 1) 『2015 개정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다.
- 2)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에 『공통과목』을 도입**하였고,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했다.
- 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각 교과는 단편 지식보다 핵심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토의·토론 수업, 실험·실습 활동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대되도록 구성하였다.
- 5) 대학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고등학교 문·이과 이분화와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어느 영역으로 진로진학을 결정하든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으며,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 과도했던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을 적정화**하였다. 기존의 2009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총 이수 단위가 180단위인 경우 국어, 수학, 영어를 최대 90단위로 편성이 가능하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총 이수 단위가 180단위인 경우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를 6단위 포함 시켜 국어, 수학, 영어를 최대 84단위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 7)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대입제도, 교원 양성 및 연수 체제 등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 자주적인 사람**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
- 교양있는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 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실제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

- 자기 관리 역량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지식정보처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적 사고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 심미적 감성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 의사소통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 공동체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 라. ‘인문학적 소양 교육’을 포함

- 1) 인문학적 소양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 2) 인문소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한다.
- 3)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문학 교육을 이론이 아닌 감성과 소통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며, **연극 교육 등을 활성화**한다.
- 4) 교과별로 학습 내용에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한다.

## 마. ‘과학기술 소양 교육’을 포함

- 1) 과학기술 소양이란 자연, 인간, 사회와 문명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및 사회적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2) 과학기술 소양을 기르기 위해 고등학교 과학을 대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한다. 특히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실험·탐구 중심 수업으로 운영**한다.
- 3)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공계 진로를 계획하는 학생들이 과학 교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선택과목(7개), 과학계열 과목(12개)을 개설하였다.



## 바. 소프트웨어(SW) 교육

- 1)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다.**
- 2)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고 협업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3) 소프트웨어의 제작 원리에 대한 이해, 발달 수준에 따른 놀이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교육용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 **고등학교는 심화선택 「정보」 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내용을 개편하였다.

## 사.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일정

- '18년 3월 :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적용
  - '19년 3월 : 초1~6학년, 중1~2학년, 고1~2학년 적용
  - **'20년 3월 : 초1~고3학년 전 학년 적용**
- ※ 국정 17년부터 적용, 검인정 18년부터 적용

## 아. 「공통과목」 이해

- 1) 『공통과목』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목이다.
- 2)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으로 구성되며, 사회와 과학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개발하였고, 실험·실습·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탐구실험 과목도 신설하였다.

## 자. 「공통과목」과 교과별 「필수이수 단위」

- 1)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고, 필수이수 단위는 학생들의 교과 간 균형 잡힌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 2) 『공통과목』은 해당 교과별 필수이수 단위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인 10단위를 이수하기 위해, 우선 『공통과목』 ‘국어’(8단위)를 이수한 후에,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이나 진로 선택과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 2015 개정교육과정 일반고 및 자율고, 특수목적고(괄호 표시) 이수 단위 표 〉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 한문/교양		16(12)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차.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 수강

- 1)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 『일반선택』: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이며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 『진로선택』: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및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학생들은 진로 선택과목을 통해 심화된 학습이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배울 수 있으며,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이고,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더 부여하였다.
- 2)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진로 선택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3)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에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각 5단위)	진로선택(각 5단위)
기초	국어	국어 (8단위)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8단위)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영어	영어 (8단위)	영어, 영어II, 영어 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6단위)		
탐구	사회 (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8단위)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8단위) / 과학탐구 실험 (2단위)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 일반
	제2 외국어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II, 프랑스어II, 스페인어II, 중국어II, 일본어II, 러시아어II, 아랍어II, 베트남어II
	한문	-	한문I	한문II
	교양	-	과목 상세 생략	

문과, 이과로 양분된 엄격한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선택과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에 따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예시) 〉

교과군		경상계열(사회 중심)		어문계열(외국어 중심)	
		일반선택	진로선택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 영어II	영미문학 읽기	영어, 영어II, 영어 회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전문)
탐구	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한국 사회의 이해(전문)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과학	물리학I	과학사	생명과학I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생활·교양		한문, 실용 경제, 진로와 직업, 논술		중국어, 한문, 진로와 직업	중국어 회화(전문), 중국어II

교과군		예술계열(예술 중심)		이공계열(수학, 과학 중심)	
		일반선택	진로선택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문학, 독서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수학, 수학II,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영미 문학 읽기, 실용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진로 영어
탐구	사회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화	
	과학		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지구과학II,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미술 창작, 드로잉, 매체 미술(전문)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생활·교양		일본어, 한문, 진로와 직업, 철학		기술·가정, 정보, 진로와 직업, 환경	

## 2.2.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중요성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기회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제시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 6가지 중 가장 앞에 제시된 역량은 ‘자기관리역량’인데 그 목적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대입제도개편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 역시 모두 이와 같은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인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주요 대학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학생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선택한 교과목의 이수 여부와 성적을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 강의, 타 학교 연계형, 지역대학 협력형, 지역 교육 시설 활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성취 평가제 등의 모든 고교교육 혁신방향 역시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입 전형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대학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이전보다 학생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각 학과 또는 단과대학별로 해당 계열(또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에서 선택해 수강해야 할 교과들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고1 때 공통과목을 마친 후 고2와 고3이 되면서 선택하게 되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학생이라면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설계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리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기제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와 흥미·적성에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문제풀이만 한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교과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기본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 그리고 관심과 흥미를 빨리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이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따른 교과선택을 돕기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같은 안내를 잘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과목 선택을 해나간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로의 방향에 따라 원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배우게 될 전공 관련 필수 이수과목은 학과의 이름만을 가지고 유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하는 전공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필요할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관심 있는 학과의 커리큘럼을 참고한 후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서로 연계시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과목의 명칭만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로·진학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과목을 선택해 나간다면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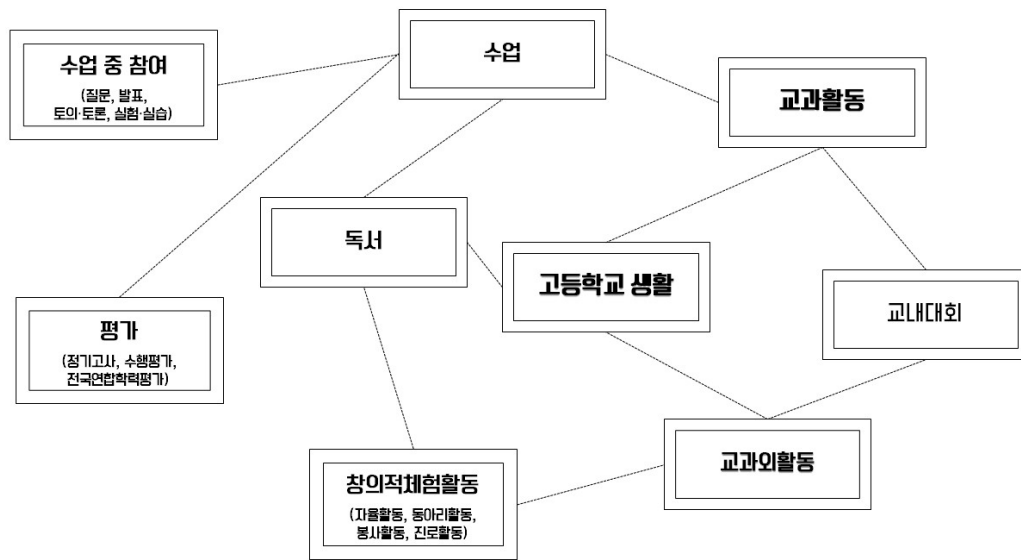
Ⅲ

# 고등학교 학교생활 안내

# 고등학교 학교생활 안내

## 3.1. 고등학교 생활 안내

고등학교 생활은 크게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수업, 시험, 독서, 교내대회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다. 대학은 학생이 수업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는지, 수업 내용에 따른 각종 시험들을 잘 치르는지, 수업과 관련하여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교과외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대표적이다.



한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알고 싶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들여다보면 된다. 3년간 선생님들이 항목별로 누적해서 기록하면 대학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 가. 교과활동

수업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 최근 수업은 질문이 살아있고, 발표와 토의토론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실험 실습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선생님에게는 학생에 대한 관찰 정보가 달라지고 학생에게는 시험결과가 달라진다. 수업 관련 수행평가는 학생의 지적호기심과 탐구심을 잘 드러낼 수 있기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핵심 기록이 될 수 있다. 배운 내용을 심화시키고 스스로 탐구하는 데에 교과 관련 독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 나. 교과외활동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활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학생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할지 구성할 수도 있다. 교내대회는 학년 초에 받는 연간계획표에 따라 진행된다. 자기 관심사와 진로에 관계되는 대회는 미리 확인하고 참가하자. 학생 스스로 하는 가장 좋은 활동은 독서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권장도서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독서가 필요하다. 이 외에 지원희망 대학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진로 탐색 및 입시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고교대학 연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교외활동이다.

## 다. 학생부의 중요성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습경험과 개인별 경험이 연간 누적 기록되는 공식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는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학생부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한다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교내 행사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면 의미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학생부의 의미는 ‘노력하고 변화하고 성장한 나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학교 활동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선생님과의 만남에서는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학입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충실하게 관리해서 수시모집 활용의 폭을 넓히자.’는 것과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라’는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내신을 잘 받기 위한 학교 공부는 수능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 학생부 관리가 잘되어야 대입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 1)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학 진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중요도는 여전히 높다. 대학들의 연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한 학생들이 입학 후 학업성취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대학들이 해당 전형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내신성적이 매우 낮아도 스펙이 탄탄하면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내신 평균이 6등급인데 외부활동으로 로봇 만들기 활동을 해서 큰 상을 받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합격이 가능했다. 하지만 외부활동이 배제된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성적(내신)과 수업 내 활동상황을 알 수 있는 수업 중 교과활동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즉 차분하게 수업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참여 중 활동력, 협업, 발표 등도 매우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 2) 좋은 학생부 비교과 기록의 조건

모든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진 않지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을 간과하고 입시를 생각할 수 없다. 정시전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도 학생부 위주전형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는 주요 대학들이 소개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요소를 통해 대학이 선발하고 싶은 학생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은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면접을 통해 서류에 대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다.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탈락해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형 간소화로 인해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대학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선발하는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이다.

종합 평가	학업 능력	학생부	교과관련 성취수준(정성평가) 학업관련 교내 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별 학습활동 및 과제 수행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학업관련 동아리 및 탐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의 학업관련 내용
	학업 태도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수업참여도 및 태도 등) 학업관련 교내 수상(교내 대회 참여도 및 노력)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 진로 관련, 탐구활동 참여도 및 노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학업에 대한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수업참여도
	학업 외 소양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및 자율활동에서 드러난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의식, 봉사활동에서 나타난 배려심 등) 학업 외 교내 수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자기소개서	지원자의 인성, 대인관계, 공동체 의식 등

〈출처 :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서류 기록물 중 학생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생부 작성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특히 교과와 비교과로 이뤄진 학생부에서 쉽게 올리기 힘든 교과 성적에 비해 검증이 쉽지 않고 기록이 자유로운 비교과기록을 어떻게 더 잘 작성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좋은 학생부는 ‘잘 기록된 학생부’가 아닌 ‘잘 활동한 학생’의 내용이 담긴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학생의 실제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연구는 이제 그 학생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잘 검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열정을 갖는 것이다. 진정성 없는 활동으로 기록된 학생부는 아무리 그럴듯한 스펙으로 무장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2. 학생부는 무엇인가?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학교의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을 학생의 이수 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중심으로 학생의 교육 활동 결과를 학생의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동아리 담당교사 등 학생을 가르친 모든 교사가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류이다.

### 나. 학생부 항목별 내용(2024학년도 이후)

연번	항목	내용
1	인적&학적사항	성별, 주소, 전학 상황
2	출결상황	질병·미인정·기타
3	수상경력	교내상만 기록(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내용(제한 있음) (대입자료로 미제공)
5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실적 포함)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내용 기록 (자율동아리활동 및 개인봉사활동실적 대입전형자료로 미제공)
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각 과목별 담당 교과목 교사가 수업 태도, 학업 역량에 대해 기록(방과 후 학교 참여 상황 미기재)
7	독서 활동 상황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의 내용 기록 (독서활동 상황 대입전형자료로 미제공)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서와 같은 역할

### 다.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 비교과 평가 영역 및 내용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전체 교과 성적	상위 등급 과목은 몇 개나 있는가?
	학년별 교과 성적 추이	3개년 동안 전 과목 평균 등급이 향상되었는가?
	학업 관련 탐구활동	전공 관련 과목의 평균 등급 성적은 우수한가?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참여도가 높은가?
	자기주도학습	심화 학습, 주제 탐구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였는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비 교 과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적극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는가?
		동아리 활동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였는가?
		봉사 활동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여,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진로 탐색·체험활동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진로탐색 활동을 하였는가?
	학교 생활 충실도 및 인·적성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학교행사/학급행사 등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가?
		리더십	학교/학급 등에서 임원을 맡아 실적을 남겼는가?
		학업 의지	5개 학기 동안 개근하면서 계획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교우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교우관계 / 의사소통 능력
		인성 평가	학교생활 중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규칙 준수, 타인 존중, 관계 지향성 등을 실천한 사례가 있는가?

## 3.3. 학생부 어떻게 완성하나?

### 가. 출결상황

출결상황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다. 특히 성실성 평가에서 중요하다.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 가끔 미인정 조퇴나 미인정 지각 심지어는 미인정 결석이 기록돼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면접에서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사유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성실성이나 자기주도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 미인정 결석이 3회 기록돼 있는 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미인정 결석’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언급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대학에 따라 교과전형에서는 미인정 결석 4회 이상 시 감점하는 경우도 있다.

### 나. 수상경력

학생부의 수상경력은 ‘교과학습발달상황’과 더불어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연관된 수상실적이 있다면 자기개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

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탐구활동, 연구 활동 등의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단,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기에 모든 활동이 전공 관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탐구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가능한 학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다. 때문에 탐구활동이나 연구 활동 경험의 유무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는다. 연구 활동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는다. 특기 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는다.

### 1) 창의적체험활동 기재 예시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자율 활동	28	<p>학급반장(2021.03.02.~2022.02.28.)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급우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급 문제를 해결하며 학급 전체의 인화를 위해 노력함.</p> <p>학교폭력예방다짐결의활동(2021.04.05.)에서 예방방안에 대해 학급대표로 발표하였으며, 흡연예방교육(2021.06.14.) 동영상 시청 후 교내에서 실시한 흡연예방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함.</p> <p>학교 축제(2021.09.20.)에서 1부 사회를 맡아 축제의 시작을 매끄럽게 이끌었으며, 전반적인 행사 준비 과정에서 ‘축제 준비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하였음.</p> <p>교내합창제(2021.10.10.)에서 알토 파트장을 맡아 파트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 냄.</p>
	동아리 활동	34	(애니메이션 그리기반) (34시간) ‘상상화 그리기’와 ‘미래의 자동차 디자인하기’ 활동에서 기발한 상상력과 과학적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고 자신의 그림을 조리 있게 설명함. 학교 ‘벽화 그리기’에서 친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동 작업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임.
	봉사 활동		
	진로 활동		<p>성품이 따뜻하고 주변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며, 창의력이 높아 유치원교사의 진로를 희망함.</p> <p>교내에서 실시한 직업적성검사(2021.03.18.)를 통해 자신이 예술가형과 진취형의 특성을 좀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어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탐색 노력을 하고 있음.</p> <p>꿈을 찾아 떠나는 직업순환체험(2021.06.18.)에 참가하여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직업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여 이에 대해 상담 조언함.</p>



## 2) 동아리 활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구성 절차(→)

담당 부서	학생	담당 부서	담당 부서	학생/지도교사
학교교육계획에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동아리 구성, 지도교사 섭외, 동아리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동아리 담당교사 취합 및 결재	학교장 승인, 교육정보 시스템에 자율동아리 부서명 등록	동아리활동 전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 - 동아리활동 Q&A

Q :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A : 동아리 활동과 모집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불리하지 않다.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니다.

〈출처 :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 리더십 Q&A

Q : 학생회장, 부회장 등의 리더십 경험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A : 리더 역할 경험의 유무에 따라 학생들을 높게, 혹은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리더십은 반드시 학생회장, 부회장, 동아리회장 등 대표자로 활동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보다는 어떤 경험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출처 : 인하대 학생부종합전형 Q&A〉

## 3)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기록할 수 있으나, 2024 학년도 부터 대입전형에 개인봉사활동실적은 제공되지 않는다. 학교 봉사활동 실적만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중간고사(1차 지필)와 기말고사(2차 지필)의 성적을 수치로 기록하는란과 학습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을 서술 기록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란으로 구분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성적 관련 성취 정도를 기록한다고 해도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할 수 없다.

교과학습발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년별 내신성적의 기록이다. 학생부 종합평가에서는 성적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B 두 명의 학생의 내신등급이 3등급인 학생이 있다. 학생 A는 학년별로 2, 3, 4등급으로 평균 내신이 3등급이고 학생 B는 반대로 1학년 때 4등급, 2학년 때 3등급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2등급으로 평균 3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은 모두 같지만, 평가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된다. 성적향상의 흐름도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적 향상도가 두드러진 학생의 경우는 '자기주도성'과 '발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성적의 기록과 관련한 중요한 정성평가 요소는 모집단위와 연관된 성적의 기록이다. 예를 들어 작가가 꿈인 학생이 국어성적에서 뛰어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교과발달상황의 기록에서 숫자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많은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학생 A	2	3	4	3
학생 B	4	3	2	3

\* 평균은 동일하지만 대학별 반영방법과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생부교과전형)

\* 성적향상도가 두드러진 학생의 경우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평가가 높다. (학생부종합전형)

#### - 교과학습발달상황 Q&A

Q : 학년별 교과 성적의 추이는 항상되어야 하나요?

A : 성적이 항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교과성적이 항상 되었다고 해서 합격을 하고, 성적이 하락하였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자는 고학년이 될수록 동일과목의 수강자가 적어지고, 계열구분으로 인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다는 환경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거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적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Q : 서류평가 시 학생부 교과영역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 학생부종합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성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내신성적 평균만으로 지원자를 줄 세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자료를 통해 판단한다. 학교별로 교과 등급뿐 아니라 수강자 수, 이수 교과목,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학년별 성적 추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출처 : 인하대 학생부종합전형 Q&A>

#### 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수업시간, 방과 후 학교, 연구과제 수행, 학업능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이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듯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교사의 과목별 추천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교과 수업시간과 방과 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의 학업능력이 기록이 되도록 하면 좋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Q&A

Q1 : 지원 모집단위가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모집단위의 경우 어떤 교과와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나요?

A1 : 대학에 개설되어있는 전공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인문계열이라면 국어, 영어, 사회는 기본이고 수학, 과학, 기타 여러 과목을 통해 대학공부에 기본이 되는 교과 지식, 학습 방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자연계열의 경우 어떤 대학 전공도 수학, 과학이 기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모집단위라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개설되어있는 여러 교과목을 배웠던 과정과 성취가 중요하다.

<출처 : 인하대 학생부종합전형 Q&A>

Q2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업능력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A2 :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 활동이나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되고 검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는 고등학교 소개 자료를 통해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환경을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학생부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통해서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적을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정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수강자가 4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A학생의 성적과 수강자가 14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B학생의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단순히 교과 성적의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다.

< 출처: EBS 입시Q&A >

Q3 :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은 중요한가요?

A3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은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교과와 관련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다. 학생은 이 항목에 자신의 교과와 관련된 학업 역량과 학업 발전가능성 혹은 교과와 관련된 학업 적성 등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EBS 입시Q&A >

## 6) 독서 활동상황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진로와의 연관성과 모집 전공단위와의 관련 있는 독서 활동의 기록이다. 2024학년도부터 독서활동상황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독서가 필요하다.

IV

과목별  
학습 방법

## 과목별 학습 방법

### 4.1. 국어

국어는 모든 교과와 기본이 되는 도구 과목이자,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내신 국어의 경우 출제자이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성실하게 듣고 시험 범위 내의 지식을 빈틈없이 암기하면 만점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수능 국어는 단순히 지식 측정이 아닌 사고력과 응용력을 요하는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 국어와는 다른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수능 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단계별 학습 전략', '영역별 학습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수능 만점을 위한 국어 공부의 길을 익혀 보자.

#### 가. 내신 국어 학습 전략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수시 모집 전형 중 학생부 교과 내신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내신등급의 수치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의 변화 추이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신 등급의 향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어 과목은 모든 과목의 도구 과목이자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므로, 국어 내신 등급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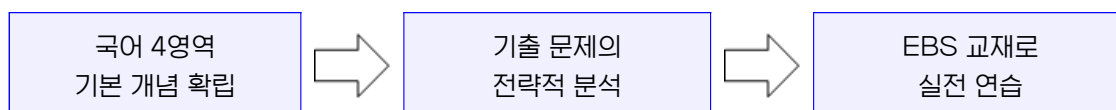
내신 등급은 한 학기를 중심으로 산출된다. 학교별 특성에 따라 내신 평가의 세부 요소는 상이하지만, 평가 영역은 크게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지필 평가 준비 시기에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지필 평가의 출제자인 교사들은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부교재를 참고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자인 교사의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기를 꼼꼼하게 해 놓아야 한다. 지필 평가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했다가 학교 선생님께 꼭 여쭙봐야 한다.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예상문제를 만드는 것도 좋다. 학생이 출제자가 되어 예상문제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제자의 심리와 문항 구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필평가에서 큰 변별이 발생하는 서술형 문제의 핵심은 출제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술형 조건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삼을 것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답안을 써야 한다. 따라서 조건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하고, 서술형 답안지가 원고지 형식으로 되어있는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까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수행평가는 크게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와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수행 평가로 나뉘어지는데,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경우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국어 수행평가의 항목은 독서, 발표, UCC 만들기 등 교과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수행 평가 시기에 학생들이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교사가 제시하는 수행평가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결과가 결국 지필평가와 합산되어 내신등급을 구성하게 되므로 수행평가의 점수가 잘 나오면 좋지만, 점수가 좋지 않더라도 수행평가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충분히 있다면 그 과정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남게 되고, 이는 훗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행평가를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발전 가능성, 인성, 잠재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나. 수능 국어 학습 전략

수능 국어는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 기본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출제 요소와 빈출 문제 유형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출 분석을 모두 끝냈다면 EBS 교재 중심의 실전 문제 풀이 연습을 꾸준히 하여 답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확립해야 한다.



### 1) 기본 개념을 확립하자!

1단계는 ‘개념 확립’이다. 국어의 기초 개념들은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되므로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이 약한 학생들의 경우 선지에 제시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요소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찾아 이해하지 못해 문제 풀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국어 영역에서 쓰이는 주요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 요소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찾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핵심 개념 또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제시하거나, 지문의 흐름 및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여 선지의 개념에 해당하는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문항을 출제한다. 가령 독서 영역의 경우, 논지 또는 문제 상황 제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모색, 특정 이론에 대한 반박, 절충안 제시, 통시적 고찰 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문의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묻는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어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면 될까? 바로 EBS의 강좌와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강좌 중에서도 올림포스 강좌와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시리즈의 강의와 그 교재들은 수능 대비를 위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의 필수 개념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므로, 출제자가 주로 활용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기출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에 기출의 중요성을 모르는 수험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다. 대부분 기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혀 본 후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을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란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자들이 자주 출제하는 패턴을 학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화법’이나 ‘작문’에서 주로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가, ‘문법’에서 개념을 묻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독서’에서 지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구성은 어





면 것이며 항상 출제되는 유형은 무엇인가, ‘문학’에서 지문으로 제시되는 작품은 주로 어떤 것들이며 장르별로 항상 출제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등을 파악함으로써 수능 출제의 패턴을 익히고 그에 대한 대비법을 확립하는 것이 기출을 분석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답지와 오답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출제자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국어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에 필요한 독해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수험생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제시된 문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지, 선택지의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며, 그 과정에서 선지에 함정을 설계한다. 그렇다면 출제자는 어떻게 선지에 함정을 설계하는 것일까? 출제자는 선지에 지문의 정보를 변형하여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것처럼 위장한다. 다음 기출 지문의 일부를 보고 출제자가 선지에 어떤 함정을 설계했는지 파악해 보자.

지문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
선지	형광등의 수은 입자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

출제자는 선지에 ‘열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은 입자’에 해당되는 것인 양 함정을 설계했다. 즉 제시된 선지는 수은 입자에 대한 내용 범주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전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인데, 이것을 수은 입자의 특징으로 읽어냈다면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나와 있는 견해나 주장의 주체를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단순히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 좋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덤벼들지 말고, 선지에 설계된 함정의 정체를 찾아내는 눈을 기르려는 노력을 하자. 이를 위해서는 EBSi에서 제공하는 기출 문제 해설 강의나 <기출의 미래> 같은 수능 기출 관련 강좌를 통해 선생님들의 선지 분석법을 잘 봐 두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출제 요소로 활용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될 것이고 추측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를 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EBS 교재로 실전 연습을 충실히 하자!

1단계와 2단계가 잘 다져진 뒤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3단계인 ‘실전 대비’이다. 기출 문제를 모두 분석했다면, EBS 교재에 수록된 문항을 중심으로 실전 연습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BS 교재에 수록된 문항은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에 준하는 복잡하고 치밀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므로, 실전 연습을 하기에 최적화된 지문과 문항이라 말할 수 있다. 양질의 글과 문제로 실력을 기르고 다지는 것은 실전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하자.

## 다. 국어 영역별 학습전략

### 1) 독서

‘독서’는 수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이다. 독서 영역에 나오는 지문은 보통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분야의 지문을 골고루 출제하였는데

요즘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하나의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의 수가 늘어나면서 지문의 개수가 줄고 있다. 또 하나의 지문에 두 개 분야의 내용이 통합된 지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서’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을 찾는 정보가 글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각 문단의 화제어와 핵심어에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문제의 답은 지문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지나치게 활용하거나 창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문 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제재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윤리, 사상, 심리, 역사, 논리학, 고고학, 신화학, 종교학, 인류학 등이다. 인문 분야의 글을 통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대체로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세부 내용이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 및 이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문제, 지문을 현실 상황이나 다른 관점에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중심 제재와 관련된 핵심어를 중심으로 글쓴이와 학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회 영역은 사회 현상, 정치, 경제, 법률, 언론, 광고, 문화 등 광범위한 범위의 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영역은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어 온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법이나 경제 분야가 나올 때 정답률이 낮은 편이며, 최근에는 사회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 글, 경제 현상과 관련된 글, 사회 복지 제도나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등에 대한 글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세부 정보 파악하기,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자료 해석하기 등의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고 있고, 사회 영역의 지문을 읽을 때에는 글의 중심 화제나 핵심 내용을 표시해 가면서 읽고, 글쓴이의 주장이나 견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영역은 물리,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세부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문항 유형에서는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의 파악, 세부 내용의 추론,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어휘의 의미 파악’ 등의 기존의 유형들이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대표 문항으로 주로 출제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보기>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지문’의 완벽한 이해 여부에 달려 있다.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기>를 해석하면 출제 의도에 따르기 보다는 자기만의 해석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기>의 내용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보기>의 사례는 지문에서 글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 혹은 예시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둘을 따로 생각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 영역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의 작동 원리 및 그 특징을 설명하는 글로, 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전자, 전기, 음향, 건축, 디지털, 전통 기술, 의료 공학 등을 다루고 있다.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익숙한 대상과 관련된 기술이라도 그 원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과학 지문이 어떠한 과학 이론을 심화하여 설명하거나 과학자가 발견한 과학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면, 기술 지문은 설명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의 탄생 배경, 기술의 작동 원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야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문에서 설명한 기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으로 많이 출제된다.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이나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과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항도 거의 매번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에서 설명하는 기술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술 영역은 동서양의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건축, 조각, 사진, 공예, 예술 사조, 예술 철학, 미학 등의 다양한 예술 분야의 글들이 지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문에서 설명한 예술 사조나 예술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밑줄 친 부분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 가진 의의를 추론하는 문항이 까다로운 편인데, 예술 작품 또는 예술 사조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을 잘 표시해 둔다면 추론을 하기 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예술 영역의 글을 읽을 때는 핵심 제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지,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지, 특정한 작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자.

## 2) 문학

수능 국어의 ‘문학’은 크게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수필,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현대시와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 대개 ‘화자의 태도와 작품의 정서 이해’,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시상 전개 방식 파악’, ‘표현상의 특징 이해’, 그리고 작품 해석의 준거가 되는 내용을 <보기>에 제시하는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등의 문제로 구성된다. 특히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한다. 따라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지는 사용된 기법과 그로 인한 효과가 한 문장으로 제시되는데, 사용된 기법에는 주로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 주기 등이 제시되며 그 기법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얻어지는 효과가 제시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현대시에 문학 이론을 추가하여 지문이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문학 이론은 <보기>의 확장판이나 마찬가지로 그 동안 많이 출제되었던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과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된다. 고전 시가의 경우 고어 표기로 된 작품을 대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고전 시가의 전형적인 주제와 흔히 사용되는 시어들의 함축적 의미를 미리 파악하고 작품을 대하면 작품의 의미나 시어, 시구 등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EBS 교재에 제시된 고전 시가 작품을 우선적으로 섭렵하여 작품의 시어와 시구 등을 충분히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산문 문학 중 소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물의 유형과 성격 이해’, ‘갈등의 원인과 종류 파악’,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이해’, ‘인물의 제시 방식 파악’, ‘소재 및 배경의 서사적 기능 이해’,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어휘 및 관용 표현의 적절성 평가’ 등의 문제로 구성된다. 소설을 읽을 때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는지 이야기 속에 있는지,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등을 파악하며 읽으면 좋다. 또한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지, 현재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구조인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하여 서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기출 문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서술상 특징들의 관련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며 적용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제외한 산문 문학은 극문학과 수필이다. 극문학의 경우는 ‘인물의 성격 파악’, ‘갈등의 구조 및 사건의 전개 양상 이해’, ‘극적 형상화 기법의 적용’ 등의 문제가 출제되며, 수필은 주로 ‘작가의 관점 및 태도 이해’, ‘교훈적 주제 파악’, ‘서술상의 특징 및 개성적 표현 이해’ 등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수필의 경우, 작품에 제시된 특정한 소재나 제재를 글쓴이가 어떤 태도와 감정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까지 파악하도록 한다. 극문학의 경우에는 극문학의 특성이 반영된 문제에 주목하여 희곡의 경우 무대 형상화와 관련한 문제, 시나리오의 경우 촬영 기법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3) 화법과 작문

‘화법’은 말하고 듣는 전략과 방법에 관한 과목이다. 화법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 화법 영역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매년 수능에 빠지지 않고

말하기 방식을 추론하는 ‘말하기 방식’ 유형이 출제된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해당하므로, 화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말하기 방식을 추론하는 문항의 선지는 보통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말하기 방식의 효과’가 함께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선지에서 ‘말하기 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진술과 ‘말하기 방식의 효과’에 해당하는 진술을 구분한 다음, 지문과 연결 지어 각각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파악해 가며 문항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듣기 전략 파악 유형’은 청자의 메모나 생각을 바탕으로 청자가 사용한 듣기의 전략을 추론하거나 담화에 대한 청자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이다. 말하기와 달리 듣기는 이해 활동이므로, 이런 문항의 경우 담화의 내용과 연관 지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듣기 전략 파악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메모와 같이 화자의 듣기 전략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될 경우에는 담화 속 정보를 기준으로 자료에 제시된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담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다.

‘화법 참여자의 계획 이행 및 효과적 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 유형’은 출제 원리상 지문 속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문항은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작문’은 글쓰기의 절차와 요령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어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출 문제를 보면 작문의 과정이 출제 요소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정보 전달을 위한 글, 설득을 위한 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글, 자기표현 및 자기 성찰을 위한 글 등 다양한 목적에 따른 글이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된다. 작문에서 다루는 지문의 소재는 실용적인 내용, 시사적인 내용, 교훈적인 내용,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 등 다양한데, 이러한 소재는 글의 목적에 따라 설명문, 건의문, 논설문, 감상문, 식사문, 자기소개서, 기사문 등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번갈아 가며 출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각 글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방법 및 전략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문의 유형 중에서 ‘고쳐쓰기의 적절성’은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의 오류를 바로잡고, 글의 의도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글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 이를 직접 고쳐 쓰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어 왔고, 최근에는 기존에 작성한 글과 검토 의견을 반영한 글을 일대일로 비교·대조함으로써 고쳐쓰기에 관한 검토 의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로 변형·확장되어 출제되고 있다.

또한 화법과 작문이 결합된 네 문제짜리 세트형 문항이 고정된 출제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작문 문제가 화법과 동일한 지문을 공유하며 출제되기도 하고, 해당 글을 보고 글쓰기 과정을 역으로 떠올려 볼 것을 묻는 등의 신유형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다. 복잡해 보이는 화작 복합 세트형 문항일지라도 각 문제의 바탕을 이루는 출제 요소는 결국 기존의 문항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실전 상황에서 과도하게 겁을 먹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 4)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언어’는 기존의 ‘문법’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매체’는 시청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매체 다시 말해, 의사 전달 도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언어’ 즉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문법’은 개념 학습이 그 어떤 과목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문법 개념은 국어의 구조, 의미, 규범, 변천의 범주가 있다.

국어의 구조 영역은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운 변동, 형태소 분석,



단어 형성, 문장의 짜임, 담화 구성 원리 등 각 하위 영역에서의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또한 <보기>에 담긴 일상 언어생활 속 문법 요소들을 이해하는 유형이나, 다양한 사례를 하위 범주로 묶어 분석하는 유형, 실제 언어생활에 관한 자료에서 문법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을 다루는 유형 등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문법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한 장문의 지문을 제시한 뒤 내용 이해 정도 및 적용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이나, 문법 현상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제시한 뒤 그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또한 국어의 단어 형성에 관한 공식적 서술과 통시적 서술이 복합된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탐구하는 능력을 묻는 문항도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다 정확히 익혀 둘 필요가 있다.

국어의 의미 영역은 사전 정보 활용, 의미 관계 파악, 의미 확장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의 의미 영역은 그동안 출제가 꾸준히 되지는 않았지만 국어 문법 이론에서는 단어, 문장, 담화와 같이 언어 단위를 이루는 것과 더불어 그 중요도가 적지 않은 이론 영역에 해당한다. 이 영역에서는 실제 국어 사전의 일부를 제시하고 그에 담긴 발음 정보, 문형 정보, 활용 정보, 의미 관계 정보, 용례 등에 대해 탐구해 보게 하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동음이의의 관계, 다의 관계, 반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 관계에 대해 파악해 보게 하는 유형도 출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형에서 더 발전하여 의미와 관련된 이론을 다룬 지문을 제시하고 지문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탐구하는 세트 문항 유형도 새롭게 등장하였고, 사전의 개정 내용을 탐구하는 내용을 묻는 등 문항 유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묻고 있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평소에 의미 관련 문제를 자주 접해 보고 풀어 보는 것이 좋다.

국어의 규범 영역은 한글 맞춤법과 어법, 표준 발음법, 정확한 문장 표현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의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어 왔다. 이 영역에서는 한글 맞춤법 규정과 표준 발음법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해 보는 유형의 문제와 문법적 비문을 바로 고치는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어문 규정을 익히는 것은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 중요한 일이기에 이 영역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다. 어문 규정이나 올바른 문장 규칙을 외우려 하기보다는 실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법적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어의 변천 영역은 주로 음운, 단어, 형태, 통사, 의미 영역의 국어사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주로 중세 후기 국어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 되어왔다. 이 영역에서는 단순히 국어사 관련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현대어 풀이와 견주어 옛 국어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탐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선택지에 문법 용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음운 현상이나 형태론적, 통사론적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 문항 풀이에 유리하다. 최근에는 중세 국어 이론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제 자료에 적용해 보게 하거나 현대 국어의 문법 현상과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문법’ 영역의 문제들은 대개 문법 용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의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언어 자료를 통해 문법 개념을 탐구하는 활동을 해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와 개념 자체에 대한 정확한 학습은 물론, 이를 실제 언어 사례에 적용해 보는 연습 또한 병행해야 한다.

## 라. 고1의 첫 시험, 3월 학력평가 대비 방법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지식의 암기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내신 시험과 달리 수능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기본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시험이다. 학력평가는 이러한 수능을 '모의'로 체험해 보는 시험으로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력평가는 수능과 유사한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제시된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지의 적절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이 되어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학력평가 점수는 대학입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수능과 유사한 시험인 학력평가에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단언컨대 잘 볼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수험생은 학력평가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시하면서 수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3월 학력평가는 중학교 전 범위에서 문항이 출제되고 6월 학력평가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에서 배웠던 개념들부터 다시 정리하자. 중학교 국어 개념을 혼자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EBSi 고등예비과정이나 징검다리 강좌가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또한 고학평 국어 기출문제와 해설 강의를 통해 출제 유형에 적응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발문을 통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출제자가 제시한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자.

# 4.2. 수학

## 가. 수학 공부의 시작과 끝은 개념을 안다는 것!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레시피에 적힌 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이유를 고민하지 않고 조리 순서만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수학의 '공식'을 아는 수준이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당황하고 바뀐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 하지만 재료들이 들어가서 어떤 맛과 향을 내는지, 이 조리 과정이 왜 필요한지, 간이 안 맞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면 처음 만드는 요리도 그럴싸한 맛이 나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이다.

개념'을 이해하면 처음 접한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다. 답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한 후에 해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수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 다름 아닌 기본기라는 것. 칼질이 서툰 사람은 이제 갓 조리를 시작했는데,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이미 요리를 완성하여 내놓는다. 수학에서도 '아는 것' 이상으로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이것만은 절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부분이다.

## 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2015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생의 입맛에 100% 맞춰 줄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도 가능한 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구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교과목을 크게 3가지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누어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공통과목을 수강하고, 고등학교 2~3학년 때에는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중에 학생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대학입시에 유리해지므로, 희망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수학	수학,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경제 수학, 기하, 수학 과제 탐구

지금부터 6과목(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의 학습 내용과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 1) 수학

단원명	교과 특성
다항식	공통과목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1,2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수학,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의 기본을 다루고, 다른 단원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식의 계산보다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의 그래프	
경우의 수	

### 2) 수학I

단원명	교과 특성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일반선택과목이나 수능에서 필수과목이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문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게 된다.
삼각함수	
수열	

### 3) 수학II

단원명	교과 특성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선택과목이나 수능에서 필수과목이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과정으로 편성한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라 오히려 수학보다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다항함수의 그래프와 변화율, 넓이에 대해 다루게 된다.
미분	
적분	

## 4) 미적분

단원명	교과 특성
수열의 극한	대수능의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많은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편성할 것이고, 공학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이다.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기 때문에 이공계열 진학에 필수이지만, 과목 특성상 복잡한 계산이 많고,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이 많다.
미분법	
적분법	

## 5) 확률과 통계

단원명	교과 특성
경우의 수	대수능의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많은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편성할 것이고,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공부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비롯해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	
통계	

## 6) 기하

단원명	교과 특성
이차곡선	대수능의 선택과목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에 비해 다소 내용이 삭제되어 학습량이 줄어들었지만, 3차원 입체 공간을 사고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 편차가 큰 편이다. 도형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과목이다.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과목은 복잡한 식의 계산이 삭제되고, 기존 중학교에서 다루던 내용이 추가되어 전반적으로 학습량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수학’ 과목에는 기존 2009 교육과정에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이과 통합수업으로 인해 성적 산출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문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기하를 비롯해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서 전반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줄어들었지만 학습해야 할 개념이 줄었다고 해서 출제되는 문제의 난도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심화문제가 어느 과목에서든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내용 중 어느 개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 다. 고등학교 입학 전 수준별 학습법

중학교 과정을 마친 후 고등학교 입학까지 12월~3월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유로운 3개월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도한 선행학습, 지나치게 어려운 교재, 학교 시험 범위와





맞지 않는 학원 수업 등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학부모는 실망하고, 학생의 자존감은 떨어져 점점 더 수학을 싫어하게 된다. 수학은 단순히 많은 문제를 풀고 선행학습하는 횟수가 많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여러번 하는 것 보다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의미있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학습법만이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탄탄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중학교에서 배운 수학 용어, 개념을 확인하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실수 체계, 다항식의 계산,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이차방정식, 이차함수, 도형의 성질 등에 대한 복습은 학생의 수준에 관계 없이 반드시 해야한다. 특히 도형의 성질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심화 단원이 별도로 없지만 문제에 출제되는 빈도가 높다. 도형을 잘 정리해 두면 고난도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고, 상위권 변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형을 많이 그려보며 성질들을 꼼꼼히 증명해보는 것이 좋다.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때 유형별 문제만 가득한 문제집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학원 교재이거나 주위 친구를 보고 따라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학습할 때는 당연히 ‘교과서’나 ‘개념서’를 먼저 읽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문제는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지 단순 문제 풀이가 목표가 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 1) 최상위권 수준의 학생 : 중학교 내신 상위 10% 이내의 학생

“문제 풀이에 욕심내지 말고, 깊이 있는 개념공부와 직접 증명해보기!”

교과서를 소홀히 하거나 선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학생이 많다. 일반적으로 상위 10%의 학생과 상위 30%의 학생이 같은 시간,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 역전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상위권 학생이 역전당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과목에 덜 투자하고, 나중에 필요한 과목에 많이 투자했을 때 일어난다. 그렇게 소홀히 한 개념 때문에 떨어진 성적을 다시 올리는 것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몇 배는 더 어렵다. 당장 필요한 과목에 집중하고, 방학 때는 예습 중심으로 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 시험 과목에 집중할 것을 추천한다. 최상위권은 킬러문항(2~3문항)에서 승부가 나는데, 연산 능력에 자신이 있다고 암산으로 답을 찾거나 남들보다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 빠른 계산 속도는 초등 학생에게나 자랑거리이다. 이런 성향의 학생들이 오히려 계산 실수가 잦고,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서툰 경우가 많다.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며 수행평가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공식을 증명해보고, 어려운 문제는 해설지의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이해하며 똑같이 적어보길 추천한다. 수학 공부의 절반은 대표 유형들을 실수 없이 해결하며 감각을 유지하는 것에, 나머지 절반은 고난도 문항을 충분히 고민하는 것에 투자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항 중 21번, 29번, 30번과 같은 최고난도 문항들은 여러 강사의 해설강의를 통해 조건을 해석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 2) 상위권 수준의 학생 : 중학교 내신 상위 10%~30%의 학생

“전교 1등 문제집&학원 따라간다고 전교 1등 되는 게 아니다. 부족한 개념부터!”

성적을 올리려면 자신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듣는 강의, 다니는 학원, 푸는 문제집을 따라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학생이 많다. 이것은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산악인이 “오랜 시간의 연습으로 인해 히말라야를 오를 수 있게 된 것”처럼 전교 1등인 학생도 “오랜 시간의 연습으로 인해 어려운 문제집을 풀 수 있게

된 것”이지 “저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서 성적이 올랐으니 나도 저 문제집을 따라 풀면 성적이 오를거야”라고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면 안 된다. 상위권 학생이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역량은 킬러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킬러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빠른 시간에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것이다. 킬러문제를 풀지 못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1등급, 2등급은 가장 어려운 2문항을 틀리더라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다. 교과서와 개념서의 모든 공식을 증명해보고, 어려운 문제는 해설지의 한줄 한줄의 의미를 이해하며 똑같이 적어보며 공부하길 추천한다. 대표 유형을 풀어내는 시간과 최고난도 문항을 고민하는 시간의 비율을 7대 3정도로 균형있게 유지하도록 한다. 최상위권으로 앞서나가고 싶다고 선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성적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3) 중위권 수준의 학생 : 중학교 내신 상위 30~60%의 학생

“수업 들은 것을 자신이 공부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복습해야 내 것이 된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의 숙제 정도만 겨우 하거나 학교에서 수업만 들은 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학생이 많다.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내가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 성적은 오를거야’라고 과신하거나 ‘나는 수학 머리가 없어서 해도 남들처럼 성적이 안 나와’라고 수학을 부담스러워한다. 사실 첫 번째 경우의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경우의 학생은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좌절하게 되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고등학교 첫 시험의 성적이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1학기 시험에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중위권 학생의 대부분이 개념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스스로는 ‘응용 문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서툴다’거나 ‘고난도 문항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부량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의 공부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권의 교재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교과서와 개념서, 쉬운 유형별 문제집을 반복 학습하여 단원별 대표 유형들만 해결할 수 있더라도 극적인 성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2개월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복습에 투자하고, 1개월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의 1회 독, 혹은 앞 3단원(1학기 과정)의 2회 독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 4) 하위권 수준의 학생 : 중학교 내신 상위 60% 이하의 학생

“헛되게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한다면 반드시 역전 찬스는 온다.”

기본적으로 핸드폰, 컴퓨터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많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본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두르다보면 대부분이 ‘수포자’가 된다. 우선 자신의 하루, 일주일,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생활 패턴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허비하는 시간들을 확인하고, 습관을 조금씩 고쳐가기 위해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30분씩 4회 앉아 있기’와 같이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가며 중학교 수학의 복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필요하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용을 정리하는데 두 달의 시간을 투자하고, 남은 한 달의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의 앞 3단원(1학기 과정)을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한다. 책상에 앉아 집중하는 자세만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절반의 성공! 1학기 과정을 살펴보고 갔다면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테니 그 때부터 다시 한 번 도약하면 된다.



## 라. 바르게 수학 공부하기

1) 기초는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해서 기초인 것이다. 기초가 없이 요령만 익혀서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법.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다항식의 연산을 충분히 연습하고, 복잡한 식의 계산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많이 다뤄보는 것이 좋다.

2)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계산이지만, 수학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공식에 숫자만 넣어 계산하는 예제를 맞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개념을 자세히 설명한 개념서나 교과서를 정독하며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개념과 개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학생들은 교과서의 단원명을 술술 적어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단원명을 적지 못한다. 빈 노트에 한 단원의 세부 개념들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며 정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3)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하겠어요. 기본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응용문제는 못 풀겠어요.'라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식'을 '개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공식 ≠ 개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에는 개념을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고,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 즉 '증명 과정'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한줄 한줄 적어가며 어떻게 이 공식이 유도되고, 왜 이 공식이 필요한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의 응용문제라고 해봐야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 보다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라보고, 해설지의 '정답만 보며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4) 알고 있는 개념을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어떤 개념을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혹은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면 이해하지 못한 채 기억력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 된다. '설명하기'는 가장 좋은 공부법으로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게 해준다.

풀어내는 문제의 양에 목표를 두지 말고, 개념의 이해를 목표로 하기를 바란다. 빠르게 진도를 빼는 것에 급급하거나 여러 권의 교재를 공부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교재를 선정하고 한 권의 교재를 완벽하게 알 때까지 몇 번이고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공부법이다.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어 혼란스러워 하는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공부해야 하는 단원, 과목이 바뀐다고 해도 본질적인 공부법은 바뀌지 않는다. 겉데기만 바뀌었을 뿐, 알맹이는 그대로니 스스로를 믿고, 바르게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더이상 수학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 4.3. 영어

### 가. 중학 영어 vs. 고등 영어

중학교까지는 혼자서 또는 학원의 힘을 빌려 시험 때마다 2단원 또는 3단원 정도의 영어 본문을 외우듯이 공부를 하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시험 범위가 적고, 문법 포인트도 한 번의 시험에 5~6 포인트로 제한되기 때문에 문법을 잘 몰라도 외우면 점수를 획득하기 쉬웠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접하는 영어는 중학교와는 큰 차이가 있다.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

중학교 영어	고등학교 영어
영어 교과서의 문장이 짧고, 본문이 짧은 편이다.	영어 교과서의 문장이 길고, 본문이 긴 편이다.
시험 범위가 넓지 않아서 외워서 1등급 받을 수 있다.	시험 범위가 넓어서 외워서 1등급 받을 수 없다.
시험 범위가 교과서 위주이고, 많지 않다.	교과서 외에서도 부교재, 모의고사에서 시험이 출제되어 시험 범위가 많다.
교과서 중심이다.	교과서 + 수능(모의고사) 중심이다.
성적은 절대평가로 측정된다.	성적은 절대평가로 부여받지만, 이후 대입을 위해서 9등급제로 다시 계산된다. 실제로는 9등급제이다.

중학 영어와 달리 고등학교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 범위가 많다는 점이다. 교과서의 본문 길이가 훨씬 길고, 교과서 외 문제집이나 자료를 수업의 부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매달 실시되는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가 된다. 본문 2~3단원만 공부하면 되던 중학교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공부량이다. 외워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매달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다. 순수하게 영어 실력으로 새로운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영어의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은 고1 3월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 성적이 대폭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좌절을 경우가 많다.

### 나. 수능 : 고등 영어의 중심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수학능력시험의 약자인 '수능'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적순으로 대학을 갔지만 현재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제도가 입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능의 의미는 크게 2가지이다. 수능 최저와 정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성적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에서 2과목 합쳐서 4등급, 3과목 합쳐서 5등급과 같은 수능 성적을 받아야 한다. 정시는 과



거처럼 수능 시험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다. 전체 입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이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능 영어 시험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범위가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문들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실상 범위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교과서만 공부한 학생들은 당황할 수 있다. 게다가 수능에 출제되는 문장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제한된 범위만 외우는 식의 공부로 시험 점수를 유지했던 학생들은 수능 중심의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는 절대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다.

## 다. 영역별 공부법

### 1) 단어 공부법

단어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모든 영어 공부의 시작이 되는 영단어 암기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 ① 노베이스면 무조건 단어 암기부터 한다!

학생들이 쓰는 표현 중에 노베이스라는 표현이 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를 뜻한다. 영어 노베이스는 무조건 단어 암기부터 시작하면 된다. 단어를 모르면 어떤 영어 공부를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문법 공부를 해도 예문들의 단어를 몰라서 진도가 안 나가고, 듣기를 하려고 해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느 학원을 가든, 어느 인강을 들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노베이스 또는 영어 실력이 평균 이하라면 무조건 단어 공부부터 시작하면 된다. 많은 학생들이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서 더 빠르게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을 기웃거리지만 단어 암기 없이는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 없다.

#### ② 단어가 족어도 안 외워진다면?

학생들의 영어 고민 중 단어가 안 외워진다는 고민이 상당히 많다.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학생들이 다수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100개의 단어 중 30개 정도의 단어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고생해서 단어를 외워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어 암기를 위해서는 복습 또 복습 해야 한다. 영어 단어는 7번은 봐야 외워진다고 한다. 단어 암기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과정이다. 단어를 암기하고자 한다면 까먹는 양을 감안했을 때, 매일 30개 이상의 단어를 최소 6개월은 외워야 대략 2,500개 정도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 수능에서 쉬운 기초 단어를 제외하면 매년 1천개 정도의 단어가 출제된다. 따라서 2,500개의 단어를 알면 독해가 쉬워진다. 단어가 안 외워진다고 고민하기 전에 30개의 단어를 6개월 외워본 후에 생각해보자. 그 전까지는 모두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 ③ 좋은 영단어책 선택하는 법

단어를 외우기로 결심했다면 단어책 1권을 선정해서 외우자. 영어 초보라면, 단어책 1권을 빠르게 외우면서 기초가 되는 영단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책을 외워야 한다. 단어책을 펴볼 때, 아는 것이 반, 모르는 것이 반 정도 있는 단어책이 좋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외울 분량이 많아서 공부에 탄력이 붙지 않는다. 기존에 아는 단어라고 해도 예문 속에서 한 번 더 익히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단어 반, 모르는 단어 반 기준으로 단어책을 선택하자.

그리고 반드시 영어 예문이 있는 단어책을 선택해야 한다. 단어의 한글 뜻만 제시된 단어장은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기억이라는 것은 자극이 필요하다. 영단어의 한글 뜻만 외우면 아무런 자극이 없다.

#### ④ 영어 단어는 하루에 몇 개를 외워야 하나?

위에서 30개의 단어를 6개월 정도 외울 것을 추천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교육부에서는 초등, 중고등에서 학습해야 할 기본 어휘를 제시한다.

초등 어휘 수	800
중고등 어휘 수	1,800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이라면 2,600개의 기본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 벗어나는 단어들을 만나게 된다. 2,600개의 단어는 기본 중의 기본 단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2,500개의 단어 암기를 목표로 이를 위해서 30개의 영단어를 6개월간 암기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 2) 문법 공부법

### ① 문법 공부를 꼭 해야 하나요?

중학교에서 만나는 영어 문장들은 주로 짧다. 문법을 몰라도 단어 뜻을 조합하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고 말한다. 중학생들은 문법을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문장이 짧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고등학교 영어에서 만나는 문장들은 길이가 길다. 긴 문장들은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불가능하다. 장문의 문장은 단어 의미만 가지고 해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조각 퍼즐로 비유하면 10조각 내외의 조각 퍼즐은 금방 맞출 수 있지만, 20~30조각의 조각 퍼즐은 맞추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 ② 중학교와 다른 고등학교 문법

중학교에서는 교과서 한 단원에 2~3개의 문법이 있다. 따라서 몇 가지 문법 포인트만 공부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범위가 없다. 고등학교의 대표적인 문법 문제는 아래와 같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Psychologists who study giving behavior ① have noticed that some people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 while others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Those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seek evidence about what the charity is doing and ② what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charity is really helping others, they make a substantial donation.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are not so interested in whether what they are ③ doing helps others — psychologists call them warm glow givers.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makes ④ them feel good, regardless of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In many cases the donation is so small



— \$10 or less — that if they stopped ⑤ to think, they would realize that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is likely to exceed any benefit it brings to the charity.  
[2018 수능 28번]

5개의 보기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야 한다. 물론 수능 어법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정리하면 20~30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문법 전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고등학교 문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법 기본 지식과 문법 기출 문제를 익혀두어야 한다.

### ③ 인터넷 강의로 문법의 기초를 쌓아라

중학교, 늦어도 고1까지는 문법 전체에 대한 개념을 완성하기를 권장한다. 그래야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영문법의 기초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다. 문법은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인강을 통해서 문법의 기초를 쌓는 것을 추천한다. 아무리 훌륭한 문법책도 혼자서 보며 이해하기는 어렵다. 단어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암기’이지만, 문법은 암기보다는 ‘이해’에 가깝다.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머릿속에 제대로 기억되는 만큼 영문법은 인강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공부하자.

EBS에는 무료로 기초 문법을 완성할 수 있는 강의들이 다수 있다. 학원은 영포자를 위한 강의를 많이 내놓은 반면, EBS에서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있다. 자신이 영어 왕초보라면, EBS 강의를 활용해서 초보를 탈출해보자.

## 3) 문장해석 공부법

문장해석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단어를 외우고 문법 강좌를 완강했는데도 여전히 문장해석이 안 된다는 학생들이 많다.

### ① 단어를 유추하지 말고 외워라

“독해를 할 때, 단어의 뜻을 찾아보지 말고 유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학생들은 이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외국어 고수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공부의 비결로 꼽는 것이 암기와 성실함이다. 성실하게 매일 새로운 것을 익히고 외워야만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

하물며 영어 초보는 어떻겠는가.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또 외워야 한다. 단어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2~3개 이상 가지고 있다. 기본 의미를 익힌 상태에서 맥락에 맞는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지만,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하는 것은 유추가 아니다. 영어 초보라면 하루에 30개씩 6개월 단어를 외워 단어의 기초를 완성해야 한다. 그래도 모르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 그때부터 모르는 단어는 맥락을 이용해 의미를 유추해야 하는 것이다. 문장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이다. 지금 바로 단어 암기를 시작하자.

### ②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해라

문법은 구시대적인 공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영어는 문법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영어로 된 글들을 읽는 데 써야 한다. 수학으로 비유하면 공식 하나 외우고, 연습문제를 2~3문제 푸는 것이다. 그러나 문법 공부를 안 하는 것은 공식을 안 외우고 연습문제를 20~30문제 풀게 되는 것이다.



문법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공식이다. 문법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자. 고1 시기에 탄탄한 문장해석 실력을 길러야 고2, 고3 때 꾸준하게 성적이 향상된다.

## 라. 고등학교 내신 공부법

중학교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본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추가로 문법,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하면 A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의 내신 대비법은 중학교 때와 다르다. 결정적으로 고등학교의 내신은 범위가 많다. 고등학교는 절대평가의 탈을 쓴 상대평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인 9등급 제도에서 1등급은 전체의 4%이다. 100명이 시험을 보면 4명만이 1등급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100명 중 10명이 100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 시험에는 1등급이 없어진다.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 없고, 최고 등급이 2등급이 되는 것이다. 시험이 쉬우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다. 시험을 어렵게 내는 방법은 범위를 넓게 하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된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의 내신은 중학교보다 훨씬 점수 받기가 어렵다.

### ① 고등학교 내신의 특징

1.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범위가 넓다. 교과서 + 부교재에서 시험이 출제 된다.
2.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의 유형은 수능 영어와 거의 동일하다.
3. 서술형 평가의 비율은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이다.
4.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지필평가이다.

고등학교 시험은 변별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4%만이 1등급을 받기 때문에 수행평가보다는 변별에 유리한 지필 평가가 시험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변별을 위해 킬러 문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내신만을 위한 문제가 존재하기보다는 수능 영어의 유형과 거의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 영어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 평소에 영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내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② 고등학교 내신 대비법

1. 시험 범위의 지문들에 대한 단어를 완벽하게 외운다.
2. 단어만을 이용한 반의어, 유의어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어들은 해석을 위해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된다.
3. 시험 범위의 지문들에 대한 완벽한 해석은 기본이다.
4. 지문에 대한 해석이 끝났으면, 지문을 여러 각도로 분석한다.
  - 문법 출제 포인트 표시 및 정리 → 문법 문제 대비
  - 맥락상 중요한 어휘 표시 및 정리 → 어휘 문제 대비
  - 연결어(but, for example 등)모두 표시 및 정리 → 연결어 문제 대비
  - 지문의 주제 정리 및 주제가 드러난 부분 표시 → 주제 문제 대비
  - 글의 주된 내용이 담긴 부분의 핵심 어구 표시 → 빈칸 문제 대비
  - 흐름이 느껴지는 글의 경우, 글의 흐름 정리 → 글의 흐름 문제 대비
  - 글의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은 따로 노트에 정리 → 서술형 대비





고등학교에서는 지문을 ‘분석’한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문을 해석만 하거나 단순히 지문과 답을 외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능 영어의 주요 유형인 주제 찾기, 제목 찾기, 빈칸주론, 어법, 어휘,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등의 유형에 대비해서 지문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지문을 4~5번 보면서 다각도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EBSi의 강의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올림포스>, <수능특강>으로 대표되는 EBS 연계교재는 많은 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EBS의 교재들은 EBSi 사이트에 모든 강의가 탑재되어 있고, 시험 대비용 자료도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단기간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늦어도 고1 때는 영어의 기초인 단어, 문법, 독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③ 고등학교 서술형 대비법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수능 스타일의 서술형이 출제될 수 있다. 서술형 문제들은 평소에 독해 유형별로 푸는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제, 제목을 쓰는 문제, 빈칸 완성하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 시험을 대비할 때 지문의 주제, 지문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은 반드시 따로 정리해서 공부하면 좋다.

서술형 종류	문제 유형
수능 스타일	글의 제목 쓰기, 주장/주제문 완성하기, 빈칸 완성하기, 적절한 어휘 고르기 글의 순서 찾기, 요약문 완성하기, 지칭하는 내용 쓰기, 문장의 위치 찾기

## 마. 영어는 고1 때 마스터

고등학교 입학하고 몇 개월 정도 생활을 해 보면, 중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공부량이 많고 할 것도 많음을 깨닫게 된다.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만 주로 공부하던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시험 준비는 기본이고, 쏟아지는 수행평가 과제에, 진로 관련된 활동도 꾸준히 해야 하고 대회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고2, 고3이 되어도 바쁜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영어 과목은 성적을 올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이다. 탐구과목의 경우 A라는 개념을 제대로 익히면, A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다. 하지만, 영어는 단어 10개를 외웠다고 해서, to부정사 문법을 배웠다고 해서 독해 문제를 풀 수 없다. 독해는 어휘, 문법, 문장해석, 독해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벼락 치기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다. 따라서 고2, 고3으로 나아갈수록 시간은 없고, 영어 성적은 올리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영어는 고1 때 모의고사 기준으로 90점 이상, 1등급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어의 기본기인 어휘, 문법, 문장 해석을 고1 때 집중적으로 잡으면 충분히 영어 1등급에 도전할 수 있다. 고1 때 영어 1등급을 달성하면, 고2, 고3 때 대입을 위한 활동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다른 과목 공부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대입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를 명심하고 고1 때 영어에 승부수를 던지자.

## 4.4. 한국사

### 가.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를 여전히 필수과목으로 응시해야만 하는 학생인 것은 변함없다.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2020년 현재까지는 한국사 시험을 안치르고 중간에 집에 가버리면 성적표가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무조건 응시해야 하는 과목이란 뜻이다. 또한 절대평가이다. 절대평가인 과목이 영어가 하나 더 있으나 난도만 비교하자면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한국사는 쉽다. 이게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세 가지 키워드이다. 필수 응시! 절대평가! 쉽다! 이 특징을 오해했을 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1) 필수 한국사란?

한국사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한국사 기본 지식의 이해 정도와 역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 변별을 위해 고난도 문항을 일부 출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2017학년도부터는 모든 문항을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쉽게 출제한다. (2017 대수능 한국사 필수에 따른 출제 방향 공개, 교육부, 2014.4.11.) 이 말인 즉,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 한국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말이며, 또한 학교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말이다. 필수로 운영되는 한국사 영역은 4교시에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되며, 문항 수는 20문항이고 시험시간은 30분이다.

#### 2) 절대평가란?

등급	1	2	3	4	5	6	7	8	9
분할기준 (원점수)	50점 ~ 40점 이상	40점 미만 ~ 35점 이상	35점 미만 ~ 30점 이상	30점 미만 ~ 25점 이상	25점 미만 ~ 20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이상	10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 0점

한국사 영역의 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을 제공하는 타영역(과목)과는 다르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의 만점은 50점이며,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점수인 10점을 기준으로 5점씩 낮아진다. 9개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아래와 같다. 즉 40점 넘으면 다 1등급이란 뜻이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에는 오로지 등급만 나온다.

#### 3) 응시는 무조건?

수능 필수 한국사 시험은 다른 과목과 달리 유일하게 전원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성적표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수능을 응시해서 결과를 받아보고자 한다



면 반드시 한국사를 응시해야 한다. 영역별로 선택/미선택에 따라 응시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사는 무조건 응시해야 한다.

## 다. 수능 한국사 정리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 ▶ 필수응시과목, 절대평가
- ▶ 총 20문항(2점 10개, 3점 10개), 50점 만점
  - 1등급 40점 이상/2등급 35점 이상/3등급 30점 이상/4등급 25점 이상
- ▶ 단원 분배(총 20문항)
  - 전근대 10문항(선사시대 1문항/삼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2문항/고려 3문항/조선 4문항)
  - 근현대 10문항(개항기 3~4문항/일제강점기 3~4문항/현대사 3문항)

▶ 한국사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

- 1) 한국사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개념을 모르면 틀린다.
- 2) 선지의 격이 있다.
- 3) 정치, 사회, 경제, 문화사가 골고루 나온다. 나왔던 주제를 배제하지 않고 핵심 개념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다.
- 4) 전근대 10문항, 근현대 10문항 총 20문항이 같은 비율로 출제된다. 선사시대 1문항, 삼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2문항, 고려 3문항, 조선 4문항, 개항기 3~4문항, 일제강점기 3~4문항, 현대사 3문항

## 라. 한국사 공부법

1) 내신 한국사만이라도 제대로 한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신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다. 그리고 내신 한국사는 수능처럼 쉽지 않다. 고1 때 학교에서 하는 한국사 수업을 제대로 듣고, 내신 시험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온 친구들이 고3 때 한국사로 인해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 수업을 잘 듣고 내신 한국사를 포기하지 않는 학생이 고3 때 와서도 그 기억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는 이렇게 준비하자.

우선 주요 개념을 알고, 흐름을 익혀야 한다. 아주 상세한 사실까지 암기하려고 고생할 필요는 없다. 해당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도만 알면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이 어느 시대에 나오는지 알면 된다. 또한 그 개념과 개념이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자. 이걸 ‘흐름’이라고 한다. 역사는 시간의 기록을 모은 것이기에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요 개념과 흐름만 잡고 있다면 한국사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EBSi 사이트에 들어오면 <수능개념> 한국사 강좌가 열려있다. 제대로 한 번은 공부하자고 했을 때 그 목표가 되는 강의가 바로 이 수능개념 한국사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한 번만 집중해서 완강을 해 주기를 바란다. 완강을 한 다음에는 배웠던 개념과 흐름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가끔 시간을 내어 복습해 주기를 바란다.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한국

사 교재를 채택하여 공부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연계교재를 풀어보면서 수능 한국사 연계 출제를 대비하면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출제자들이 묻고 싶은 것을 제대로 밝히며 묻고 있다.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반드시 또 출제한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 생활상은 반드시 1문항 출제되며, 고대사에서 2문항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원과 내용이 거의 정리되어 있다. 고려시대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그리고 조선시대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영조, 정조 등은 매 모의고사와 그해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하였다. 또한 현대사의 통일 관련 문항이나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역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다. 또한 기출문제도 올해와 전년도 것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 4.5. 통합사회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의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통합사회 학습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영역별 대학입학제도의 변화 내용(교과 중심)

개정된 수능 개편안의 경우 정시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시의 비중이 정시의 비중보다 상당히 높은 70% 수준이다. 주요 대학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내신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교과 영역(내신성적)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동아리활동,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한 자료이다.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자를 선발하는 전형을 말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성적 외 비교과영역(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말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 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소논문 기재 금지,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입력 글자 수 축소 등으로 비교과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내신의 영향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사회는 문·이과 모두가 배우게 되는 내신 필수과목이다. 통합사회의 경우는 중학교 수준 60%, 고등학교 수준 40%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결국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사회의 주제 중 심화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이 파트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특히 통합사회가 수능과목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각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개념의 깊이에 대한 합의가 각 학교 내에서의 합의로 그친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사회의 세부 분야(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가 개별 사탐 선택과목 수준으로 심화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합사회가 수능과목에서 제외되면서 중요도가 떨어졌다고만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좋은 내신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통합사회 공부법

### 1) 지필 대비

통합사회 공부는 각 단원별 중요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기본이다. 학교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뼈대가 되는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순히 암기 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주요하게 학습해야 할 핵심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한 후 학습해야 하며, 자신만의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어 요약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함께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제 풀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사회과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다 보니,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였음에도 해당 개념이 문제화 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문제 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추상적인 사회개념이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체크를 해야만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이다. 특히 해당 학교의 전년도 기출문제들을 통해 반복 출제되는 교과와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 2) 주제별 학습법

통합사회는 크게 일반사회 영역, 지리 영역, 윤리 영역, 역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사회 안에서 각 영역의 비중은 일반사회가 가장 높고, 지리>윤리>역사 순으로 비중이 나타난다. 내신의 경우는 시험 범위 내의 모든 단원, 모든 개념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된다기보다는 각 학교별로 선호하는 킬러파트가 정해져있는 편이다. 따라서 평소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 학교에서 심화된 수준으로 배운 주제는 통합사회 강의 이외에 관련된 과목의 수능강의 중 필요한 단원만 선택하여 들으면서 심화학습을 해두면 좋다. 통합사회 내의 각 영역에 따른 학습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사회 : 통합 사회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일반 사회의 영역은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또 세분화 할 수 있다. 이 영역 중 법과 정치, 경제,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큰 편이다.
  - 법과 정치 :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교사 입장에서 어려운 파트일수록 전략적으로 킬러문항을 출제하기 쉽다. 따라서 법과 정치의 비중이 높은 <Ⅳ. 인권 보장과 헌법>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는 파트이다. 기본권의 내용,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인권의 확장 과정, 청소년 노동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반복학습이 필요하며, 해당 개념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 경제 : 과목 성격상 한 번 제대로 이해해 두면 추가적인 공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경제는 일반사회 중에서 난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이며, <Ⅴ. 시장 경제와 금융> 단원이 난도 높게 출제 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기회비용, 무역이론과 관련하여 킬러 문항이 수능 경제 수준으로 높게 출제된 적도 있다. 따라서 기회비용, 비교우위의 문항은 관련 경제 인강 등을 들으며 확실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 사회문화 : 일반사회 영역 중 난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평이한 수준의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 영역 중 비교적 난도가 높은 파트는 <Ⅶ. 문화와 다양성 단원> 중 ‘문화 변동의 양상과 원인’ 부분이다. 이 부분의 경우 도식화된 문제 출제에 대비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례를 보고 문화 변동의 양상, 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지리 : 지리의 경우 개념의 이해가 어렵다기보다는 지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는 거의 정해져 있으므로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Ⅱ. 자연환경과 인간>, <Ⅲ. 생활공간과 사회> 단원에서 지리 파트의 비중이 높으며, <Ⅶ. 문화와 다양성> 단원 중 세계문화권의 구분 파트도 빈출되는 단원이다. 지도상 기후대의 구별 및 기후대별 생활양식의 특징은 내신 빈출 파트이며, 기본적으로 위치의 파악이 중요하므로 세계의 문화권이 표시된 지도를 항상 곁에 두고 자주 보면서 눈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생활공간과 사회>의 경우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변화 양상, 교통 통신과 정보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잘 익혀두어야 한다.
- ③ 윤리 : 사상, 사상가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며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대화나 제시문을 주고 해당 글이 어떠한 사상가의 입장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한 사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전형적으로 출제된다.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단원의 비중이 높으며, 정의의 실질적 기준 중 ‘분배의 기준’과 관련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는 편이며 학생들이 많이 헛갈려 하는 부분이므로 각 분배 기준의 특징 및 한계까지도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그 외 <Ⅱ.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 중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및 ‘유불도 사상’ 또한 자주 출제되므로 해당 사상들을 대비하여 잘 정리하여야 한다.
- ④ 역사 : 역사의 경우 단독으로 한국사가 필수 교과로 선정이 되어, 통합사회 내에서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 중 통합적 관점을 이해할 때에, 역사적 관점에 해당하는 시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Ⅳ. 인권 보장과 헌법> 중 인권의 확장 과정에서 시민 혁명에 대해서(영국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 등) 학교에서 심화된 수업을 하였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정리하여야 한다.

### 3) 수행평가

통합사회의 경우 학기 말 총 배점의 45%는 서술형·논술형 평가와 정기고사 이외 수행평가가 차지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필평가의 주관식과 수행평가의 비중이 한 학기 전체 평가의 최소 45%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행평가의 경우, 안내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다면 만점을 받도록 설계되어있으므로 크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되는 수행평가의 내용과 평가 기준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출 기일이나, 반드시 서술하여야 하는 조건, 동료 평가 등에서 감점 요인이 많이 발생하므로 우리 학교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 감점 요인이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감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 통합사회의 중요성

내신에서의 통합사회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이 외에 통합사회는 지리, 역사, 윤리, 사회 과목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통합사회를 공부하면서 내가 어떠한 탐구과목에 적성을 지니고 흥미가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내가 수능 때 선택하게 될 탐구과목을 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탐구 영역은 문·이과 상관없이 17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 특정 탐구 과목을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의 경우 쉬운 과목으로의 편중보다는 대학이나 학과의 지정 과목의 선택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사회를 단원별



로 심화하여 공부해두면 고3 때 내가 선택하여야 할 심화탐구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의 선택과목이 될 사회탐구 선택과목을 상당 수준 대비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문이과 모두 대학의 논구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에서도 나타나듯이 미래의 인재상으로 창의융합인재가 중요하게 언급되며, 이를 골자로 내세우는 대학별 전형이 상당수 준비되어있으므로 통합사회의 여러 대주제는 논구술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4.6. 통합과학

### 가. 고1 통합과학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하나?

대입에서 계속하여 수시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내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점수의 합산으로 내신성적을 산출하며 각각의 비율은 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학기 초 공지되는 연간 평가계획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1) 지필평가 대비

1학년 통합과학의 경우, 한 선생님이 전체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고, 네 분의 선생님이 각각 자신의 전공 부분을 가르치기도 한다. 교육과정 상 통합과학 교과와 내용이 양적으로 많지 않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내용에 비하여 쉬운 편이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따라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보다 심화된 내용을 알려주시기도 하므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와 그림 등의 자료들은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학습 시에 눈에 익혀 두어야 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는 형태의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문항에 익숙해져야 한다. 특히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게 되므로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학습해야 하고, 문제 풀이 후에는 채점에만 그치지 말고 모든 보기에 대한 정오 여부를 따져가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신등급 변별을 위해 지필평가의 문항별 배점을 소수점 단위로 나누게 된다. 시험 문제를 풀 때, 배점이 높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수행평가 대비

수행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탐구 실험, 포트폴리오 작성, 프로젝트 진행, 발표 등 개별 혹은 조별로 과제가 부여되며 이들을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모두 평가한다. 사전에 공지되는 평가 기준을 잘 숙지하여 이에 맞추어 과정 및 결과물을 내도록 해야 한다.

#### 3) 풍부한 학생부 만들기

희망하는 진로와 해당 학기에 학습하는 내용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보고서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등의 수행평가를 할 때 적극적인 태도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심화 연구회 활동, 교내 캠프 참가, 교내 대회 입상 등에 활발히 참여한다면 학생부가 더욱 풍성해짐은 물론이고,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나.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어떻게 바뀌나?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등학교 과학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과학은 이미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과학책 속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는 그것을 각기 다른 책으로 공부하게 될 뿐이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물리(물리·II)	화학(화학·I)	생명과학(생명과학·II)	지구과학(지구과학·II)
내용	속도, 가속도 에너지,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파, 파동, 반도체, 광전효과, 열역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상대성 이론 등	원소, 화합물, 화학 반응식, 분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탄소 화합물, 산화 환원 반응, 산과 염기, 중화 반응 등	세포, 염색체, 유전자, 사람의 유전,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자극의 전달, 신경계, 항상성 유지, 질병과 병원체,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	한반도의 지질, 지각 변동, 판 구조론, 날씨 변화, 해류, 환경오염, 지구의 자전과 공전, 천체 관측, 태양, 달 등
관련 학과	물리학, 교통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컴퓨터 공학, 건축학 등	화학, 약학, 임상병리학 등	생물학, 의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한의학, 수의학 등	지구과학, 천체학, 지질학, 해양학 등

수능에서는 과학탐구 8과목, 물리, 물리II, 화학, 화학II, 생명과학, 생명과학II, 지구과학, 지구과학II 중 택해서 시험을 치른다. 현재는 문과, 이과 구분이 있고, 이과 학생들은 과학탐구 8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문과, 이과 구분이 폐지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총 17개 과목(사회탐구 9개·과학탐구 8개) 가운데 두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된다.

	현재	2022 수능
탐구과목	(문과/이과 계열 구분) 문과: 사회 9과목 중 택2, 이과: 과학 8과목 중 택2	(문과/이과 계열 구분 폐지) 사회: 9과목 / 과학: 8과목(과학, II) 중 택2

## 다. 그럼 나는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

일단, 고등학교 3년 동안 위 과목들을 골고루 배우게 되니, 배우면서 흥미가 생기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택하는 것이 좋다. 관심 있는 과목을 학습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학습하는 과목, 능동적으로 공부하고픈 욕구가 많은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반영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대학들이 융합적 소양이 필요한 경우





사회 1과목 + 과학 1과목을 요구하거나, 또는 과학기술 분야의 소양이 필요한 경우 과학 2과목을 요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서 필수 선택과목이 지정된 경우가 있는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과목이 있는지, 논술이나 면접 등에서 유리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판단하여 관련성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라. 수능 과학탐구,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 1) 교과 개념을 확실하게 학습하도록 하자.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수능에서는 단원별 교과 개념을 통합적으로 묻는 문항도 출제되니 단원 간 개념을 연관 짓는 연습이 필요하며, 하나의 자료(그림, 그래프, 도표)를 가지고 다양한 단원의 내용을 물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한다.

### 2)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을 키우자.

수능 과학탐구 거의 모든 문제에는 그림, 그래프, 도표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과 실험·탐구의 설계 및 수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편이니,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3) 연계교재를 꼼꼼히 공부하자.

2022학년도 수능은 EBS 연계교재에서 50% 연계되어 출제된다. 수능특강, 수능완성과 같은 EBS 연계교재를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필수이며, 연계교재를 공부할 때는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해설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료와 개념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물을 수 있는지, 자주 묻는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4) 이미 기출되었던 문항(수능, 모의평가 등)을 분석하여 대비하자.

수능은 2022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온 시험이고, 따라서 수능 및 모의평가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수능에서는 문제의 유형은 거의 변함없이 기출 문제의 자료가 응용·변형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크므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출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식의 학습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문항이 어떻게 변형 또는 응용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다.

V

EBS

콘텐츠 활용 안내

## V. EBS 콘텐츠 활용 안내

# EBS 콘텐츠 활용 안내

## 5.1. EBSi 소개

### 가. EBSi 소개



국가대표 고교사이트, EBS 고교강의(EBSi)는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품격 동영상 강의 및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이다.

학생 맞춤형 영역/학습 단계/시리즈별 강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입 정보 및 수시 서비스, 대입 전문 선생님과 1:1 대입 상담 서비스, 문제은행 서비스를 통한 실전 대비 기출문제 풀이 서비스까지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최적의 학습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 나. 사이트 이용



선생님, 모든강좌는 고1,2,3 선택에 따라 각 학년에 맞는 내용으로 서비스되며, EBS 교재, 입시정보, 기출문제, 맞춤학습은 공통 서비스로 학년 선택에 상관없이 통합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강좌 상세페이지에서는 강의 수강은 물론, 학습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일반화질/고화질로 강의를 선택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버퍼링이 심한 경우,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EBSi는 모바일웹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창에 m.ebsi.co.kr을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마이메뉴에서도 내가 수강중인 강좌를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의 나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통합검색에서는 찾고 싶은 검색어를 한글자만 입력해도 관련 검색어를 추천해주고, 문항코드 검색도 한 번에 가능하다. 듣고 싶은 강좌 선택, 강의별 질문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최신 입시뉴스와 입시설명회 다시보기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5.2. 예비 고1 대상 추천 강좌

## 가. 고등학교 핫데뷔를 위한 고1 성적 미리보기 <고1 예비 2022, 내 등급은?>

<p>특징 1. 전국 단위 수준 진단을 경험할 수 있는 강좌                  특징 2. 2022년 반 배치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강좌                  특징 3. 2022년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강좌</p>	
--	--

<고1 예비 2022, 내 등급은?>은 예비 고1을 대상으로 고1 성적을 미리 볼 수 있게 만든 강좌이다. 고등학교 첫 시험인 반 배치고사 연습을 위한 EBS 예상 문제 2회분 수록으로 고등학교 시험 유형의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3월 새 학기 첫 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 연습을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 최신 3개년 3회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내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급컷, 표준점수, 원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보는 수능형 모의고사에 대한 실전 경험의 기회를 쌓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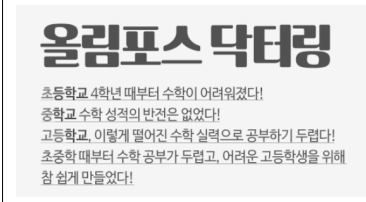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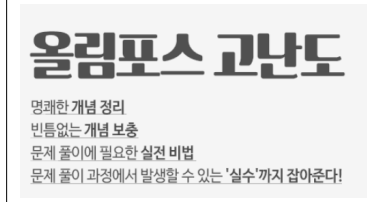
## 나. 고1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기본서! <올림포스>

<p>특징 1. 교과서를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만!                  특징 2. 교과서 기본 내용이 주제별로 정리!                  특징 3. 수능, 내신, 수행평가를 동시에 준비!</p>	
---	--



국어, 수학,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모든 것이 처음인 고1에게 EBS 대표 기본개념서 <올림포스>를 추천한다. 내신과 수능을 위한 기본 개념 정리부터 다양한 문제 유형 학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를 잡고 싶다면 <올림포스>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는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에도 들어 있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하게 배우는 '선택과목'에도 포함되는 중요한 과목이므로 기초부터 제대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공부가 되는 친절한 <올림포스>와 함께하면 고등학교 공부 준비가 든든해질 것이다.

## 다. 수학이 고민인 학생들을 위한 특화 강의 BEST3!

BEST1.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어려워한 친구를 위한 <50일 수학>		
BEST2.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배우는 친구를 위한 <올림포스 닥터링>		
BEST3. 진짜 수학 상위권을 위한 고난도 문제 연습 <올림포스 고난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부터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중학생 때 어려워서 넘겼던 수학의 일부 단원이 또 나오고, 반복되면서 결국 고교까지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다. 또는 반대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많은 친구들은 좋은 수학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은 수요가 있기도 하다. EBS에서는 이렇듯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부터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까지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새롭게 기획, 제공하고 있다.

### 1)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어려워한 친구를 위한 <50일 수학>

<50일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을 위해 초중학교 과정에서 알아야 할 수학 내용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의 학습을 정리할 수 있는 교재이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처럼 방정식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교까지 배우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기에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배우는 친구를 위한 <올림포스 닥터링>

50일 수학이 초등학교부터 고교를 영역별로 정리하였다면, 올림포스 닥터링은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중학 개념도 함께 알려주는 고교 수학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에게 최적화된 강자이다.

### 3) 진짜 수학 상위권을 위한 고난도 문제 연습 <올림포스 고난도>

고등학교 시험에서 만점에 도전하는 수학 상위권이라면 1점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위권을 위한 진짜 고난도 문제로만 구성된 <올림포스 고난도>가 새롭게 나왔다.

고난도 문제 풀이에 필요한 명쾌한 개념정리는 물론, 문제 풀이에 필요한 문제 접근법, 풀이 전략은 물론 문제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까지 정리해주는 상위권에 최적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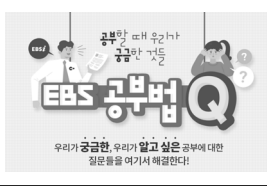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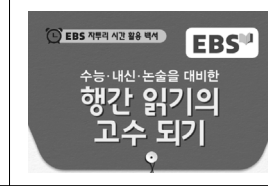

**라.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완벽하다! <개념완성>**

<p>특징 1. 2015 교육과정을 적용한 내신+수능 감 잡기!                  특징 2. 필수과목부터 선택과목까지 한번에 공부!                  특징 3. 교과서 중요 탐구자료를 한눈에!</p>	<p>고등학교 대표 기본서!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b>쑥쑥</b> 뽑았다!</p> <p><b>개념완성 &amp; 개념완성 문항편</b></p> <p>한국사, 사회, 과학의 교과서 핵심 개념을 모았다!</p>
---	--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된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1 필수 과목이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데 EBS <개념완성>을 추천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통합형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제 구성은 물론, 완벽한 개념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 풍부한 사례 제시,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유형인 서술형,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활동지와 시험 대비 모의고사까지! 내신 1등급 달성에 이보다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개념완성 시리즈에는 <개념완성 문항편>도 제공하고 있어, 지필평가 대비 및 학력평가 대비에 필요한 문항을 많이 풀어볼 수 있다.

**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공부!**

<p>추천 1. 궁금한 공부 방법에 대한 모든 것! &lt;EBS 공부법 Q&gt;                  추천 2. 자투리 시간 활용 백서 &lt;수능에 잘 나오는 사자성어&gt;, &lt;행간 읽기의 고수되기&gt;                  추천 3. 책 속에 있는 실험이 움직인다! &lt;Real 과학 실험&gt;, &lt;Real 통합과학 실험&gt;</p>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논술까지 필요한 모든 과목의 클립형 콘텐츠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필수 이론과 상식 뿐 아니라 수능과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으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해보자. 이 클립형 콘텐츠들은 강좌의 '5분 특강' 탭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다. 듀나공감(http://u.ebsi.co.kr)

EBSi에는 선생님과 소통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듀나공감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각자의 의견과 고민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들을 통해 EBSi로 공부하면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교재가 출시되거나 학평·모평이 다가올 때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좋은 선물을 제공하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응모해보자.



## 5.4. 입시정보 서비스

### 가. EBS 온/오프라인 입시설명회

공부는 결국 진학과 연결된다.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EBS에서는 다양한 분석 정보 및 설명회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입시설명회가 궁금하다면 예정 설명회에서 시간과 장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직접 들었던 입시설명회는 행사 후 1주일 이내로 사이트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의 정보 알림 수신 설정'을 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입시설명회가 개최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EBSi에서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지역으로 찾아가는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를 대신하여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입시설명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전 지역 맞춤형 입시설명회뿐 아니라 예체능, 사관학교, 특성화대학교, 공부법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입시 콘텐츠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 입시설명회

공유

2022학년도 입시설명회 <b>수능 D-DAY</b> <b>실수하기 쉬운 시험장 유의사항</b>	2022학년도 <b>현직 한의사에게</b> <b>듣는 수험생</b> <b>건강관리법</b> 21.10.19	2022학년도 [온라인 입시] <b>수능 D-DAY</b> <b>실수하기 쉬운</b> <b>시험장 유의사항</b> 21.10.1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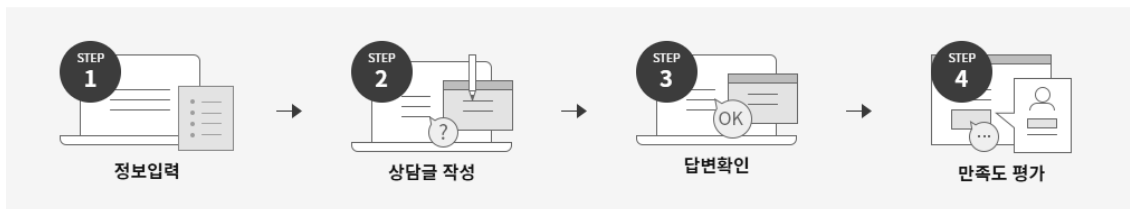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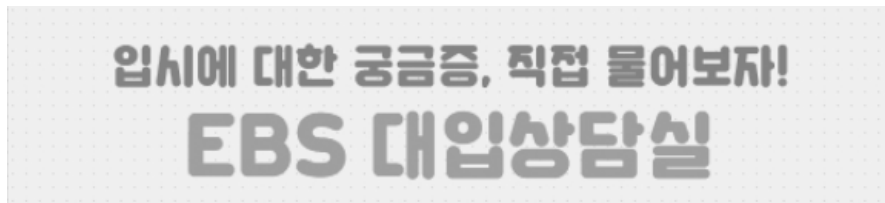
전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	---------	---------	---------	---------	---------





## 나. EBS 대입상담실

강좌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EBS 대입상담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EBS 대입상담실에서는 수시, 정시, 입시, 진로, 학습법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 대입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한 1:1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글을 작성하면 EBS 진로진학 전문가 선생님이 무료로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한다.



## 다. 입시 카드뉴스

입시가 궁금하지만 하나하나 검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발맞춰 꼭 알아야하는 정보, 정확한 뉴스들만을 가져와 알려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입시 카드뉴스가 있다. <입시 카드뉴스>는 PC는 물론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으며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라. EBS 월간 입시(+월간 학식)

2020년부터 시작된 EBS 월간 입시는 매거진 형식의 VOD 콘텐츠이다. 월간입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오픈되는 콘텐츠로, 2021년부터는 대학교 학식과 랜드마크 등을 소개해주는 부록의 월간 학식도 함께 하고 있다. 월간 입시는 ‘고3이지만 괜찮아’ 코너로 고3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며, ‘신박한 고교 생활’ 코너로 고1,2를 위한 내용도 다뤄준다. 또한, 매월 핫이슈 코너를 통해 재미있는 이슈를 공부와 접목시켜 알려주는 코너도 있다. 매월 수강후기 이벤트가 있으니 참고하여 소소한 선물을 받아보자.

**나에게 필요한 입시정보는  
매월 EBS 월간입시로 해결하자!**



## 예비 고1 EBS 입시자료집

발행처 : EBS

발행일 : 2021.11.10.

### 기획

김경남(EBS 입시정보담당 ECP)

김진화(EBS 입시설명회 매니저)

이진주(EBS 입시설명회 매니저)

### 집필

김성길(EBS 진로진학 대표강사)

장동준(EBS 국어영역 대표강사)

정종영(EBS 수학영역 대표강사)

정승익(EBS 영어영역 대표강사)

정선아(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김지선(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박주원(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 [www.ebsi.co.kr](http://www.ebsi.co.kr)에서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EBSi([www.ebsi.co.kr](http://www.ebsi.co.kr))의 모든 학습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EBSi 사이트 ([www.ebsi.co.kr](http://www.ebsi.co.kr))**

**EBSi([www.ebsi.co.kr](http://www.ebsi.co.kr))의 모든 학습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